



[금융] KB '허인호' 1년 글로벌 도전-리딩뱅크 수성 플라보 05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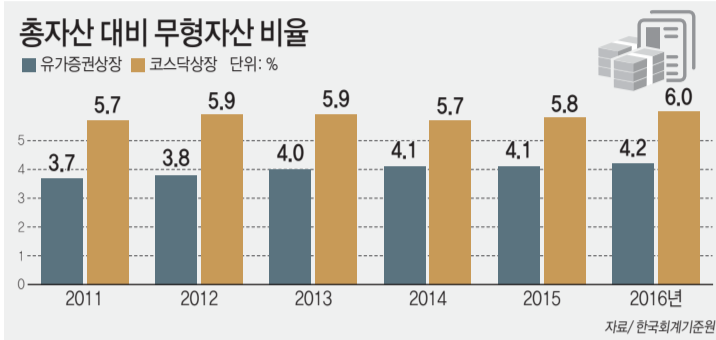
코스피	2082.58 (-17.98)	코스닥	690.81 (-11.32)
금리 (연이자율)	1.94 (0.00)	환율 (1달러)	1125.80 (-2.80) (20일)

R&D 등 까다로운 무형자산 회계, 4차산업 '발목'

대한민국 회계산혹사

회계는 중세시대

'무형자산' 회계처리 논란 상장사 재무제표상 5% 불과 연구개발 경과, 사업모형 등 비재무정보 공시 확대해야



로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라 가치 평가의 기초자료라는 점을 인정 하더라도 괴리율이 크다. 시가총액 1000억원의 기업이 재무제표 상 자산은 1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서영미 한국회계기준원 책임 연구원은 "애널리스트 등 일부 주요 정보이용자들은 재무제표 상 무형자산 정보를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편향 (bias) 요소로 간주한다"면서 "결국 기업 분석 과정에서 이를 배제 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회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회계는 무형자산을 인식 하는 경우에도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며 후속 측정 시 재평가모형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 가치동인(key value driver)인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대부분

국회회계기준(IFRS) 도입, 외부감사법 개정 등 회계 지도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회계기준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무형자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회계는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 등이 겨우 무형자산으로 잡힐 뿐이다. 재무제표가 더 구체화되고, 비재무정보 공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현재 무형자산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한 재무제표는 주가와 기업 가치의 괴리만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총 1000억 기업, 재무제표 자산 100억원 불과

실제 지난해 기준 주시가지 대비 재무제표 순자산 비율의 경우 테슬라는 8.6%, 페이스북은 13%, LG생활건강은 16% 수준이다. 재무제표가 기업가치를 그대

드, 독점권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반면 기업이 가입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핵심적인 무형자산으로 인식·보고되는 것이다.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기업가치 창출의 핵심인 무형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데도 이를 재무제표에는 나타내지 못하는 점은 분명히 문제"라며 "현재의 재무제표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제적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현행 재무제표는 마치 대폭 생략된 동양화, 산수 수묵화 같다"고 설명했다.

회계가 기업의 무형자산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비재무정보 공시 확대'가 꼽힌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결과, 새로운 사업모형, 체결계약 분석, 위험과 전략 등 내부창출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것이다.

권성수 상임위원은 "주식가치와 재무제표 순자산의 차이의 원인이 되는 항목들과 그 변동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한다면 재무제표의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메트로미디어 '제3회 뉴테크포럼'

차원 다른 연결시대 5G가 열어 갈 세상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12월부터는 5G 방식의 전파도 쏘게 됩니다.

5G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모든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변화합니다. 이전보다 월등하게 빨라진 속도와 엄청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5G는 일상생활 속으로도 들어옵니다.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초정밀 위치추위시스템, 자율자동차 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산업별로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네트워크로봇 등 5G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군사적으로도 5G는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회 뉴테크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의 시대의 도래를 미리 살펴본 메트로미디어는 이제 5G의 세계를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5G가 열어갈 세상은 어떤지, 이를 위한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5G 시대를 메트로미디어 독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5G, 차원이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09:00~11:30
- 장 소 :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메트로미디어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SW·ICT총연합회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연설: 김형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
 - 패널토론: 김형 교수, KT 최우진팀장, 송영일 서틴스플로어 대표, 박문환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수석부장
- 참가비 : 현장등록 5만원 (사전등록시 무료)
- 참가신청 : 제3회 뉴테크포럼 사무국
- 전화 (02)721-9800,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현대상선, 유황저감 컨테이너선 20척 발주

친환경선박으로 부활 '뱃고동'

친환경 메가 컨선 프로젝트

현대상선이 전 세계 해운국가들의 친환경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며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다. <현지포 4면>

'친환경 메가 컨테이너선 프로젝트'를 통해 올 하반기 총 39만 6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 달하는 선박을 추가로 발주, 2020년 2~4분기부터 주요 항로에 본격 투입키로 하면서다.

이는 현대상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총 42만TEU와 맞먹는 규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 1월1일부터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황산화물 함유량이 0.5% 이하인 저유황유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다들기관으로 움직이는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등 선박엔 벙커C유를 사용한다. 그런데 벙커C유에는 유황이 3.5% 포함되어 있다. 유황이 많이 나오는 벙커C유를 뺄수록 바다와 대기의 오염이



현대상선의 8600TEU급 컨테이너선 현대캐리지호가 컨테이너를 싣고 지난 15일 중국 상하이항을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영문명인 HMM(Hyundai Merchant Marine) 글씨가 선명하다. /김승호 기자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국제기구인 IMO가 직접 규제기로 한 것이다.

특히 상하이, 선전, 닝보 등 세계 10위권 항만 가운데 무려 6곳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홍콩 포함)은 2020년부터 0.1% 이하의 초저유황유만을 사용한 선박만 양쯔강 하구와 보하이해를 통과 시키겠다고 선포했다. 중국이 IMO보다 한 술 더 떠 더욱 강력한 환경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현대상선 중국총괄 고위관계자

는 "IMO가 2020년부터 시행기로 한 황산화물 규제는 현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화두"라면서 "항만 시장 1위인 중국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뚜렷해 해운사들로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유황 함량이 낮은 저유황유는 고유황유에 비해 가격이 50% 가량 비싸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세까지

맞물리면서 관련 회사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이는 결국 운송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IMO나 중국의 이같은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로 꼽고 있다.

저유황유를 쓰거나, 가장 친환경적인 연료로 알려진 LNG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 또 유황저감장치인 스크리버를 기존 선박에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초기부담이 전혀 없는 저유황유는 가격이 비싸고, 공급도 일정하지 않아 연료비 예측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저유황유는 현재 1톤(t)당 450달러인 벙커C유에 비해 200달러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벙커C유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을 아예 LNG선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2면에 계속>

/상하이(중국)·광양(한국) 김승호 기자 bada@

유치원·재개발 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나서

문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정부가 불평등, 지위 남용, 사익편취 등을 '9대 생활적폐'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뿌리 뽑기에 나섰다.

9대 생활적폐에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가 골고루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적폐 청산을 강력하

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너무 싼 우선주... 지배구조 물려 '매력주' 환골탈태 기대

의결권 없어 푸대접 받던 '우선주' 보통주 대비 절반값에 배당 많아 "삼성전자·두산 등 상승여력 충분"

40.9%, 2.48%.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보통주 대비 평균 가격괴리 수준과 배당수익률(2017년)이다.

그야말로 우선주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 요즘 주식시장은 이렇다 할 호재도 없고, 지수는 조금 오르려는 듯이 내내 맥 없이 고꾸라지기를 반복한다. 그런데도 답답한 증시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우선주는 '아더(Other·기타)'일 뿐이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을 많이 준다. 의결권이 없는 탓에 주가는 보통주보다 절반 이상 싼 종목도 쉽게 볼 수 있다. 알짜 우선주를 저렴하게 잘 골라잡는다면 배당과 시세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도 있다.

〈2019년 우선주 관목상대 Top 7〉

종목명	우선주 시가총액 (십억원)	우선주 주가 (원)	보통주대비 주가괴리율 (%)	52주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2017년 배당수익률 (%)	Valuation(12M Fwd)	
						P/E (배)	P/B (배)
삼성전자우	32,395.1	35,850	17.9	55.6	2.0	7.0	1.1
삼성화재우	569.8	178,500	36.1	1.0	5.7	13.5	0.9
삼성전기우	135.0	46,450	59.4	0.8	1.8	8.4	1.5
한국금융지주우	219.4	37,450	45.5	0.3	4.6	7.0	0.8
두산우	345.4	78,300	40.2	0.2	7.0	13.6	1.0
한화우	10.2	21,300	29.5	0.8	3.1	4.2	0.5
태영건설우	14.7	5,730	44.4	0.6	1.9	2.6	0.5

/자료=Quantwise, 하나금융투자

특히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상속과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부각되면서 우선주 투자자의 매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상속세 재원 확보 수단으로 배당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 2세 승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준비중이면서 오너가 고령인 경우 우선주의 배당투자 매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선주 시장

의 극단적 저평가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가치를 공유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경우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평균 가격괴리는 40.9%에 달한다. 보통주도 싸지만 의결권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우선주는 이보다 절반가량 더 싸다. 독일의 우선주 가격 괴리율(3.5%)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알파벳 A(의결권)와 C주(무의결권) 간 가격괴리는 0.6%에 불과하다.

하나금융투자 김용구 연구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타겟 괴리율 10% 사수 발언 등은 한국 우선주의 극단적 가격괴리 완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긍정적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우선주가 지닌 차별적 투자 메리트도 한층 커졌다. 2017년 말 기준 우선주 배당 수익률은 2.48%다. 보통주의 1.62%와 시중은행 예금금리인 1.60%를 넘어서는 수치다.

김 연구원은 "시장의 중장기 트렌드로 자리잡은 주주친화적 재무정책 변화나 경제민주화법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선명성 개선 시도 등은 투자대안으로 우선주의 유용성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나 두산, 한화 등 우선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증권업계 한 전문가는 "삼성그룹은 선진화된 기업 투명성과 함께 배당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 면에서도 차별화되고 있다. 해외 우선주보다 할인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른 주요 그룹 우선주 역시 보통주 주가 대비 70~80%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우, 삼성화재우, 삼성전기우, 한국금융지주우, 두산우, 한화우, 태영건설우 등을 투자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권 승계측면에서도 매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속세 재원 확보는 주요 그룹과 상장기업 최대 주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재벌그룹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를 배경으로 성장한 비상장기업의 기업공개가 재원확보의 좋은 수단이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향후에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통한 부의 축적만이 유일한 상속재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18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혁신성장 통해 ‘번영시대’ 열어가길”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韓·中 인사, 동북아 경제발전 논의

한·중 재계 주요 인사들이 동북아시아 경제 발전을 논의했다.

중국 보아오포럼은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18'을 개최했다. 행사 주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담당했다.

보아오아시아포럼은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 포럼이다. '아시아의 다보스'라 불린다. 국내에서는 처음 열렸다.

보아오 서울 회의에는 국내 재계 주요 인사들은 물론, 중국 왕용 국무의원이 참석했다.

중국 고위 임원이 해외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진위안 텐스그룹 회장과 쉰우링 텐진 타이다 에너지그룹 회장을 비롯해 추귀홍 주한중국대사와 리바오동 보아오포럼 사무총장도 동석했다.

주제는 '개방과 혁신의 아시아'로 정해졌다. '글로벌경제와 아시아 경제협력' '과학기술 혁신' '포용적 성장' 등 3개 세션이 진행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그동안 경제협력으로 다져진 양국의 관계가 오늘을 계기로 더욱 굳건해지기 바란다"며 "세계화와 자유무역 수호,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혁신성과 지속가능개발을 통해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개막식 인사를 건넸다.

/김재용 기자 juk@

생산자물가 1년 만에 하락세

한은, 10월 지수 전월대비 0.4% ↓ 농산물 지수 9.7% ↓ ... 낙담세 최저

지난 10월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생산자물가가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8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105.41(2010=100기준)로 전월(105.81)보다 0.4%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0.1% 하락 이후 약 1년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상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내린 것은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이 컸다.

농림수산물 지수(123.34)는 전월 대비 9.7% 하락했다. 이는 지난 6월(118.69) 이후 6달 만에 최저 수준이다.

/김희주 기자 hj89@

날개 단 IPTV, 이통사 새 수익원 자리매김

이통3사 3·4분기 매출액 9350억 전년 비 23.1% ↑ ... 작년 흑자 전환

출시 10주년을 맞은 인터넷TV(IPTV)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콘텐츠의 충원 등에 힘입어 케이블TV를 추월하며 이동통신사의 새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케이블TV 업체까지 넘보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3·4분기 IPTV 매출액은 총 93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주문형비디오(VOD)로 시작했던 출범 초기에는 매년 수천억원의 투자비와 적자를 기록해 이동통신사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2016년까지 4조원에 달했던 누적 적자는 지난해 흑자 전환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시장의 주도권도 IPTV 업체가 쥐었다. 포화된 시장에도 결합할인을 내세운 덕분에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1422만명의 가입자를 기록, 케이블TV를 처음 추월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KT가 20.2%, SK브로드밴드 13.7%, CJ헬로 13.1%, LG유플러스 10.9%, KT스카이라이프 10.3% 순서다. 이 중 3개 업체가 IPTV다.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IPTV의 급성장세를 보여주는 셈이다.



모델들이 'U+tv'의 넷플릭스 콘텐츠 제공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사용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유료방송서비스 시범평가 결과에 따르면 영상체감품질은 IPTV가 4.15점을 받아 케이블TV, 위성방송, 8VSB 상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콘텐츠 다양성과 관련해서도 실시간 채널 수는 IPTV가 19만3453편으로, 케이블TV(19만 7593편)에 비교해서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IPTV 3개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IPTV가 몸집 키우기에 나서며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자. 실제 올해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설이 계속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

우 SK브로드밴드를 넘어 유료방송 시장 2위로 오르게 되는 등 IPTV 순위가 뒤바뀔 기로로 작용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콘텐츠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공룡'인 넷플릭스가 글로벌 사업자로 발돋움한 것도 콘텐츠의 힘이다.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면 결국 시청자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동통신사도 콘텐츠 발굴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IPTV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단독으로 손잡고 지난 16일부터 자사 'U+tv'를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추천 기능도 140개 키워드 조합을 1000개로 늘렸고, 시청이력에 따른 추천 목록도 4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기존 컨테이너선 환경규제 맞춰 대응키로

>> 1면 '현대상선, 친환경 부활'서 계속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LNG선은 화물을 싣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 효율성이 낮다.

현대상선은 스크러버를 설치한 새 컨테이너선 발주를 통해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이 최근 발주한 스크러버 설치 컨테이너선만 총 20척에 달

한다.

이 가운데 2만3000TEU 선박 7척은 대우조선해양이, 5척은 삼성중공업에게 각각 맡겼다. 또 1만5000TEU 8척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다. 아울러 총 42만TEU에 달하는 기존 컨테이너선들도 IMO 환경규제에 맞춰 상황에 따라 저유황유를 쓰거나 스크러버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선사들도 분주한 모습이다. 프

랑스CMA-CGM은 최근 2만2000TEU급 LNG 컨테이너선을 발주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회사가 발주한 스크러버 설치 컨테이너선은 2020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받아 2만3000TEU급은 유럽 노선에, 1만5000TEU급은 미주 노선에 각각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 60개 이상의 항로를 통해 100개가 넘는 항구를 연결하고 있는 현대상선의 서비스는 더욱 빠르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중국)·광양(한국)=김승호 기자 bada@

기업가치 제고? 행동주의 명분 뒤 ‘탐욕-먹튀’ 경계를

매직램프와 M&A

② 행동주의 펀드, 탐욕과 천사 사이

외환위기는 국내 자본시장을 완전히 바꿔놨다. 민족자본은 사라지고 외국자본 유치가 지상과제로 자리 잡았다. 덕분에 만신창이가 된 채로 막대한 공격자금의 수혈을 받은 제일은행(뉴브리지캐피탈), 외환은행(론스타) 등은 외국자본에 팔려나갔다. 삼성자동차(르노), 대우자동차(GM), 대우상용차(타타그룹), 만도기계(JP모건) 등도 외국계에 넘어갔다.

옛 얘기가 아니다.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한진칼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한국판 엘리엇’ KCGI(사모펀드)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분쟁 등을 통해 단기 이익만을 노리는 벌채펀드와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천사표 ‘행동주의’에 대한 투자자들의 현안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자칫 투자자들이 ‘토사구팽’이 될 수 있다는 것.

◆행동주의로 포장된 ‘탐욕의 약탈자’

‘탐욕의 약탈자’ 한국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시선은 좋지 않다.

과거 투기자본들이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로 지분을 끌어모은 뒤 분쟁을 일으키고, 기회가 되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미련 없이 떠나는 속성 때문이다. 타이거펀드, 소버린자산운용, 헤르메스, 아이칸, 론스타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99년 미국계인 타이거펀드는 SK텔레콤 지분 6.6%를 취득한 후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다 SK 계열사에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해 63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발을 뺐다.

<단기차익 추구형 주주행동주의 사례>

구분	주체	대상	내용
경영권 위협	소버린	SK	경영진 교체 요구
	헤르메스	삼성물산	M&A 위협
	칼 아이칸	KT&G	사외이사 선임 및 공개매수
경영간섭	KOL	일은증권	계열사 대출 요구
	캐피탈그룹	삼성전자	본사이전 요구
	타이거펀드	SK텔레콤	사외이사 선임, 주식 액면분할 등
	헤르메스	한솔제지	우선주 유상소각 요구 등

2003년 4월 영국계 펀드인 소버린자산운용은 SK(주) 지분 14.99%를 매입해 2대 주주에 올랐다. 당시 소버린 측은 SK그룹에 대한 경영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 소버린 자산운용은 이후 2년 3개월 동안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내세워 SK그룹을 상대로 최태원 회장 퇴진 등 경영진 교체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계열사 청산 등을 요구했다. 1조원 가까이 투입해 방어전에 나선 SK를 소버린이 차지하진 못했다. 하지만 소버린은 지분 14.99%를 주당 5만2700원에 팔아 7559억원을 챙겼다. 배당금과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차익까지 감안하면 1조원 안팎이다.

뉴브리지캐피탈은 1999년 말 제일은행 지분 48.56%를 5000억원에 산 뒤 지난 2005년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매각해 1조1800억원의 차익을 거뒀으나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통해 거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다.

먹튀 과정은 복잡하면서도 단순하다. ‘협박 인수→다이어트(구조조정)→실적

“ 단기 차익 노리는 헤지펀드의 탐욕 펀드개입 기업, 장기 결과 수익률↓ 균형감각 갖춘 바른 전략 구사해야 ”

회전→고가 매각’이란 수법이 그중 하나다. 극동건설, 만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주식다량매집→경영권 간섭·적대적 M&A 위협→경영권 분쟁→주가 상승→막대한 차익 실현 후 철수’란 절차도 곧잘 쓴다.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실적주의 펀드는 경계해야 할 같다. 에드드한 미국 워싱턴대 회계학과 교수 등은 최근 스탠퍼드대 록센터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내놓은 ‘행동주의 헤지펀드 개입의 장기 경제적 결과’ 논문에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행동주의 펀드가 목소리를 낸 1455개 기업(전체 1964개 중 상장폐지 또는 인수합병된 509개 제외)의 2년 뒤 시가총액을 고려한 가중평균수익률은 -2.3%였다. 펀드 개입 10일 전후를 비교한 단기 수익률은 1.8%로 소폭 상승했다.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로 자산을 팔거나 최고경영자(CEO)를 바꾼 기업의 수익률(주가상승률+배당수익률)은 2년 뒤 경영개입 전에 비해 각각 -18.0%와 -3.8%를 기록했다.

◆균형과 상생, 진정한 주주 행동주의 펀드 “주식시장은 기업의 수익이나 경기전망 등 현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의 지배적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현실에 근거한 추세와 추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편향된 생각에 따라 주가가 변동하고 시장에 거품이 생길 수

있다. 시장의 추세를 알아차린 시장참여자들의 편향된 기대로 인해 추세는 점점 강화되고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되는 거품이 형성되는데 이런 추세는 현실과 편견의 간극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때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현실과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결과에 이른다.”(조지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

시장 관계자들은 “행동주의 투자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은 균형감각을 갖춘 올바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기업의 CEO가 만들어낸 균형에서 투자자는 새로운 균형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목표에 따라 전략을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넬슨 펠츠(Nelson Peltz) 트리안 펀드 매니지먼트(Trian Fund Management) 설립자는 “시장은 이미 너무나 효율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대신, 주식을 산 뒤 그 기업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김예구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의 향후 실적을 전망하여

투자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탈피, 직접 경영에 개입하여 기업의 미래 실적을 향상시켜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업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한 기업의 지배구조·자본구조·사업전략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 및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거물 칼 아이칸은 1985년 트랜스월드(TWA) 항공을 LBO(차입매수)를 통해 적대적 인수한 후 핵심 자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단기 차익을 극대화해 ‘기업사냥꾼’의 전형으로 인식(Icahn이 손을 뺐 후 TWA는 3번의 부도 후 매각)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e베이(2014년 말 시가총액 \$71B)·애플(\$641B)·바이오젠(\$83B) 등 대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장기적 기업가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구조조정 등을 제안하고, SNS 등 미디어를 통해 지지 여론을 형성하는 새로운 행동주의 투자자로 전환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AI와 오목 대결하는 민원기 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에서 HPC 이노베이션 허브 부스를 둘러 알파오목을 두고 있다. 알파오목은 고성능 컴퓨팅을 이용한 AI와 사람의 오목 대결이다. /연합뉴스

12층 높이 1만개 컨... 3층 엔진... 대양횡단 ^{움직이는} 축구장

르포 '현대캐리지호' 상하이~광양 3박4일 승선기

IMO(국제해사기구) 넘버 9347542, 콜사인 V7PP4. 현대상선의 86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현대캐리지호'가 지난 15일 밤 중국 상하이항을 우여곡절 끝에 출발, 한국으로 향했다.

현대캐리지호는 당초 상하이에서 24시간 정도 머물며 한국과 미국으로 운반할 컨테이너를 선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적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인 상하이항에 배를 대고(접안) 나오기(이안)는 녹록치 않았다.

연안서 15톤 닻 내리고 하루 발똥여 출발 지연에 연료비 수천만원 허비

중국·미국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내년 1월 관세 인상 직전에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중국산 화물이 대거 몰려 항만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출발 즈음엔 날씨까지 악화됐다.

결국 배가 항만을 오갈 때 길을 안내하는 중국인 도선사가 배에서 하루 묵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현대캐리지호가 정박한 상하이 내항의 경우 도선사는 장강과 황해가 맞닿는 곳까지 약 5시간을 운항한 뒤 내리게된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파도까지 높아지면서 도선사를 태운 중국배가 올 수 없어 연안에서 무게만 15톤(t)에 달하는 닻(앵커)을 내리고 1박을 더 보낸 것이다.

상하이에서 한국 광양과 부산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미국 LA의 롱비치까지 가야 하는 운항 스케줄이 초반부터 꼬였다. 통상 배의 하루는 비행기 한 시간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행기 한 시간 연착은 배 스케줄이 하루 늦춰지는 것과 같다. 또 비행기로 한 시간 갈 거리는 배의 하루 정도 운항거리와 비슷하다.

기자는 지난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3박4일간 현대캐리지호의 중국 상하이항~광양항 여정을 함께했다. 물론 배에서 이틀을 묵기로했던 일정도 사흘로 늘어났다.

◆시간이 생명, 연료를 아껴라

“파일럿(도선사)을 태운 채 배가 하루를 정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날씨가 악화돼 안전 문제 때문에 파일럿이 내리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측에서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해하기 어렵다.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속력을 좀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배가 황해로 접어들면서 잠시 여유가 생긴 현대캐리지호의 서민수 선장이 입을 열었다.

스케줄 지연은 먼 항로를 운항해야 하는 컨테이너선에겐 경제성과 직결된다.

20피트 컨테이너를 최대 8600개까지 싣을 수 있는 현대캐리지호가 중국 상하이에서 LA까지 이동하는데만 약 1500t의 벙커C유가 필요하다. t당 가격을 500달러로 가정했을 경우 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연료비가 편도행에 드는 셈이다. 이번에 상하이를 출발한 현대캐리지호는 이달 30일께 LA를 찍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온다. 왕복 연료비만 총 17억원 가량이다.

제때 도착하는 것이 생명인 정기화물선이 하루가 늦춰지면 수천만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박해서도 각종 장비를 돌려야 하고, 운항중엔 평소보다 속도를 높여야 해 더 많은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앞뒤 길이만 약 340m, 너비가 46m인 현대캐리지호의 갑판엔 축구장 1개 반이 들어갈 정도로 넓다. 컨테이너는 총 16층까지 쌓을 수 있다. 이는 아파트 12층 높이와 맞먹는다. 통상 컨테이너선은 최대 적재량의 85% 가량을 싣고 운항한다. 적재된 컨테이너를 일렬로 세우면 약 52km로 이는 서울에서 경기 안성까지의 거리다.

황해로 접어든 배는 북동쪽을 향해 항해를 본격 시작했다. 상하이는 우리의 제주도보다 남쪽에 위치해있어 제주도 남단을 거쳐 광양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사이 바다는 현대캐리지호의 큰 스크류가 남겨놓은 포말만이 수평선 근처까지 보일 정도로 잔잔해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보호장치 탁구장·헬스장 등 휴게시설 완비

에피소드가 많았던 출발에 비해 운항은 순조로웠다. 파도는 높지 않았고, 간혹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현대상선은 8600TEU급 컨테이너선을 4대 보유하고 있다. 배 이름은 기자가 탄 Courage(용기)부터 Brave(용감함), Faith(믿음), Force(힘)로 각각 붙였다. 현대상선에선 이들 이름을 '마음가짐 시리즈'로 부르고 있다.

◆'물밀착업'하며 음지에서 일하는 기관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08년부터 운항을 시작, 올해로 열살이 갓넘은 현대캐리지호에는 9만8000마력의 엔진이 탑재돼있다. 동력을 측정하는 단위인 마력은 통상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이 배의 엔진은 말 9만8000마리의 힘을 모두 합한 것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면 쉽다.

김성진 기관장은 “현대캐리지호가 낼 수 있는 최대속도는 27~28노트로 이는 군함과 비슷한 빠르다. 짐을 가득 채우고도 25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을 정도



현대캐리지호는 9만8000마력의 엔진을 갖추고 있다. 엔진만 아파트 3층 높이이다.



현대캐리지호가 중국 상하이항을 출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배가 밤에 출항할 때는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조종실인 브리지의 불을 끈다.



현대캐리지호 (왼쪽부터)최형도 일기사, 김성진 기관장, 정희리 일항사, 서민수 선장이 중국 상하이에 서 한국 광양으로 향하는 브리지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배를 조종하는 브리지에 배 이름인 'HYUNDAI COURAGE'와 현대상선의 영문명인 HMM(Hyundai Merchant Marine) 글씨가 선명하다.

로 건조 당시 화제가 됐던 선박"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컨테이너선으로 쓸 수 있는 연한의 절반이 넘었고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 경제속도인 18~20노트로 항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선의 수명은 15~20년이 일반적이다. 운항을 시작한 지 올해로 11년째가 된 현대캐리지호의 경우 중년을 넘긴 셈이다.

배의 뒷편에 위치한 기관실에서 지켜본 아파트 3층 높이의 엔진이 뿜어내는 위용은 엄청나다. 운항하기 위해 엔진이 본격적으로 돌자 귀마개를 해야 그나마 소리를 견딜 수 있을 정도다.

이 배에는 또 1개에 330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가 양쪽에 2대씩 총 4대가 있다. 발전기 1대로 기차 하나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다. 발전기는 배가 정박중이거나 운항시 각종 전자장치를 돌리고, 냉동 컨테이너에 공급하고, 냉·난방과 전등 등 장시간 항해에 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켜진다. 심지어 현대캐리지호엔 가장 아래에 위치한 기관실과 가장 위에 있는 조종실(브리지) 등 총 9개층을 오가는 6인용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승무원들의 이동을 돕는다.

◆뒤편에 위치한 '안전 제일'

거친 파도를 헤치고 매년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 숙명인 상선은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나의 거대한 '철 덩어리'인 배에선 살짝 부딪히기만해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선실이 아닌 갑판 이동시에 안전모와 발끝에 보호장치가 있는 안전화는 필수다.

운항 중 거대한 파도를 만나거나 다른



퇴선 등 비상용으로 쓰이는 구명정. 구명정은 탑재돼 있는 엔진을 이용해 최대 40km를 이동할 수 있다. 구명정엔 비상식량·식수·소화기 등도 있다.

선박과의 충돌 위험, 예기치 못한 태풍 등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다. 항구에 들러 컨테이너를 내리고, 올리는 시간을 빼면 엔진은 24시간 돌려야 한다. 정박중이라도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기도 켜놓는다. 이 때문에 화재 위험도 적지 않다.

선실이나 갑판, 기관실, 브리지(선교) 등 곳곳에 소화기는 물론이고 유사시에 배를 버리고 비상탈출할 수 있는 각종 장비도 골고루 갖추고 있다.

현대캐리지호의 곳곳을 안내해준 정희리 일항사는 “이 배에는 36명이 탈 수 있는 구명정 2개와 20인승 구명별 4개, 6인승 구명별 2개가 비치돼 있어 퇴선 등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엔진까지 장착돼 있는 구명정엔 비상식량과 식수, 소화기, 신호탄과 심지어 낚시도구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작은 잠수함을 연상케하는 구명정은 최대 40km를 갈 수 있다.

현대캐리지호에 설치돼 있는 구명정, 구명별 등 탈출장비만해도 21명의 승무

원이 유사시 이용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배의 후미엔 CO₂룸이 별도로 위치해있다. 장비가 많은 기관실이나 엔진룸 등에 불이 날 경우 CO₂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한꺼번에 분출하면 기계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번 승선하면 6~8개월 가량 머물러야 하는 배엔 없는 것 빼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서너평 크기의 1인실 속소에는 침대와 옷장, 책상, 소파를 비롯해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도 별도로 있다. 휴게실 책장엔 만화책, 소설책 등 각종 책들로 채워져있다. 탁구장과 헬스장, 노래방 등도 눈에 띈다. 세탁실은 물론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해놓은 식당 메뉴도 다양하다. 기자가 현대캐리지호에서 묵은 3박4일 동안엔 월남쌈, 치킨, 삼겹살, 오징어볶음, 잔치국수, 미역국, 사골국, 재첩국 등이 나와 입을 즐겁게했다.

/글·사진=상하이(중국)·광양(한국)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캐리지호가 중국 상하이항을 출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배가 밤에 출항할 때는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조종실인 브리지의 불을 끈다.

KB '허인호' 1년... 글로벌 도전-리딩뱅크 수성 '콜라보'



허인 KB국민은행장

2위와 격차 벌리며 올해 목표 달성 허 행장의 디지털화 중심은 '사람' 동남아 등 적극 글로벌 진출 모색

허인 KB국민은행장의 지난 1주년은 도전과 수성의 콜라보레이션이었다.

지주회장과 은행장 분리 첫 해에 업계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올해 초 목표로 제시했던 '지속가능한 금융의 금메달 리스트'를 달성했다. 동시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디지털 전환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글로벌 진출도 더 이상 과제가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만들었다.

◆디지털화 가속페달 밟는 '젊은' 행장

허 행장은 1961년생이다. 시중 은행장 가운데 처음으로 1960년대생으로 세대교체가 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아 조직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의 결과기도 했다.

허 행장은 먼저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KB국민은행의 이미지부터 역동적으로 확보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의 '도전, 혁신, 글로벌'이라는 성공 DNA가 KB국민은행이 추구하는 도전정신과 맞아 떨어졌다"며 "코리아 베스트가 글로벌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이 KB국민은행 브랜드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선포한 KB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은 디지털화의 가속페달이 됐다.

허 행장은 취임하면서부터 "은행 안에 또 다른 은행(Bank in Bank)'인 디지털 뱅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핵심전략이자 미래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디지털 혁신 조직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은행들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전기

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듯이 디지털은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숙명(宿命)"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화는 온라인과 모바일의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인력, 프로세스, 문화 등 조직 전체에 걸쳐서 추진할 방침이다.

허 행장의 디지털화는 '사람'이 중심이다. 그에게 디지털은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해주는 동시에, 직원들 역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디지털 관련 투자 뿐만 아니라 4000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제시한 것도 그래서다.

◆변화 버림목된 '리딩뱅크'

허 행장이 취임과 함께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세 가지였다. ▲디지털 혁신과 ▲고객중심 ▲글로벌 진출. 이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적이 든든하게 뒷받침된 덕분이다.

맞수 신한은행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수성한 것은 물론 격차를 더 벌려냈다.

KB국민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2조7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을 1454억원 차이로 역전한 데 이어 올해는 격차가 1628억원으로 커졌다.

글로벌 진출은 1년 만에 더 이상 해묵은 과제가 아닌 현재진행형이 됐다. 런던 현지법인인 지점으로 전환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재진출과 함께 캄보디아에서는 영업망을 확장했다.

허 행장은 "글로벌은 런던현지법인의 지점 전환으로 '런던-홍콩-북경-동경-뉴욕'을 잇는 KB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됐다"며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도 적극 모색 중에 있어 내년에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스미싱 사기, 이젠 AI가 잡아낸다

금감원-KB국민은행-아마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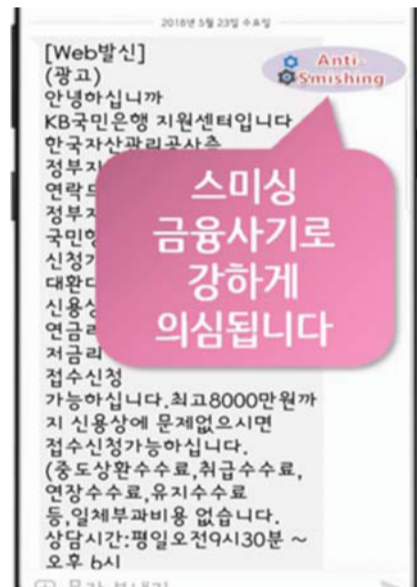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및 아마존 웹서비스와 공동으로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문자메시지가 스미싱(Smishing)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금융사기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로 보면 문자 메시지(Text)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직접 전화통화(Voice) 방식을 웃돌면서 향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협업팀을 구성하고 약 8개월 간의 공동 연구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스미싱 방지 AI 알고리즘의 개발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AI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분석해 스미싱 여부를 판별하면서 금융사기 시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AI 알고리즘은 오는 29일 금감원이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후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무상으로 제공



스미싱 차단 앱 구현 모습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전화번호 비교·분석으로 스미싱을 판별하는 등 다양한 AI를 개발해 신·변종 전자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신남방정책 맞춰 태 금융시장 진출 가속화

금감원, 태국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 양국 감독당국간 협력 강화 등 당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태국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태국 중앙은행 금융기관영업 감독국장, 금융기관전략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국가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개방을 제한적으로 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실적이 미미한 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본격적인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아세안 지역과의 교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국은 2021년 이후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태

〈태국 진출 국내 금융회사 현황〉

금융회사명	해외점포명	진출형태	개설 시기
산업은행	방콕사무소	사무소	2013년 12월
삼성생명	Thai Samsung life Insurance	현지법인	1997년 6월
KTB투자증권	KTB Securities (Thailand)	현지법인	2008년 7월

/자료=금융감독원

국 진출시 필요한 현지 감독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감독당국간의 협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태국 금융시장 현황과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한 이후 태국 중앙은행 감독 담당자들과 현지 진출 관련 개별적인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국내 주요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태국 중앙은행 담당자들은 초청기간 동안 금감원을 방문해 실무진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감독 제도 및 최근 감독 이슈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또 은행 연합회 및 국내 은행 본점을 직접 방문해 국내 은행산업 동향과 해외 진출 및 영업 현황 등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진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를 열어 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베트남 특화 '직접 해외송금' 서비스

우리은행은 최단 6시간 내에 현지통화로 받을 수 있는 '베트남 동(VND) 직접 해외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 동(VND) 직접 해외송금 서비스'는 베트남우리은행으로 직접 송금해 당일 송금 확인이 가능하고, 최단 6시간 내에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베트남 특화 송금 서비스다. 개인과 기업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영업점과 ATM 등을 이용한 다 이렉트 해외송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금수수료는 일반 해외 송금수수료와 동일하고, 베트남우리은행 계좌로 받으면 중계수수료가 50% 우대돼 1만원 가량 저렴하다.

기존 송금방식은 베트남으로 송금할 경우 주로 미국 달러(USD)로 송금하고, 베트남에서 동(VND)으로 재환전을 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베트남 동(VND)으로 직접 송금해 현지 수령금액을 확정할



수 있고, 재환전을 하지 않아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과 한국의 베트남 근로자들의 송금 수요를 파악해 특화 송금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사정에 맞는 다양한 송금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수출입은행 10억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은 20일 새벽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인이 올해 들어 두 번째 발행하는 글로벌본드다.

이날 발행된 글로벌본드는 듀얼 트랜치(Dual Tranche·만기 및 금리조건이 다른 2개의 채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방식) 구조다. 3년 만기 고정금리 5억 달러와 5년 만기 고정금리 5억 달러로 이뤄졌다.

금리는 3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미국 3년 만기 국채금리에 0.675%,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미국 5년 만기 국채금리에 0.875%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 채권 발행은 어려운 시장 환경속에서 이뤄졌다.

수은 관계자는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유가 불안정 등에 따라 주요 증

시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계획한 발행 시점을 수차례 연기하며 시장을 모니터링하다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채권발행에는 전 세계 약 90개국의 투자자가 37억 달러 규모를 주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별 투자자 분포(투자자 배경기준)를 보면 3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아시아 25%, 미국 15%, 유럽 등이 60%를 차지했다.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아시아 30%, 미국 15%, 유럽 등 55%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채권 발행에는 각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및 국제기구 등 초우량 투자자들의 주문이 많았다. 초우량 투자자들의 투자비중은 3년 트랜치 70%, 5년 트랜치 50%에 달한다. 최근 한국물 발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KB금융

협업 플랫폼 'CLAYON' 오픈

KB금융그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외부와의 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클레이온(CLAYON)'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CLAYON'은 클라우드(Cloud)와 플레이(Play), 온(On)의 합성어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내부직원과 외부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CLAYON'은 클라우드 개발환경과 웹 포털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서비스 개발자가 원하는 개발환경을 간편하게 제공 ▲개발된 서비스와 솔루션을 등록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동영상을 등록하고 다룬받을 수 있는 환경 ▲협업을 통한 일하는 방식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협업 툴 등이 있다.

/안상미 기자

AR·VR 더 생생하게... 5G용 초실감 OLED 개발戰

삼성디스플레이

시각·청각 넘어 촉각까지 만족
'햅틱 온 디스플레이' 기술 주목

오는 2019년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앞두고 디스플레이업체가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등 '초실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욱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 OLED를 통해 사용자에게 실제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 기대감을 모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5G 흐름에 맞는 OLED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를 통해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미디어 콘텐츠에 최적화된 다양한 초실감형 제품을 여럿 공개했다.

화면에서 물리적 진동을 느낄 수 있는 '햅틱 온 디스플레이(HoD) 기술'이 대표적이다. HoD는 디스플레이에 햅틱 센서



지난달 24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초대형 8K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손가락 터치로 진동을 느끼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을 선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

를 내장해 손가락 터치만으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이다. 시각과 청각을 넘어 촉각까지 만족시키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 AR, VR 콘텐츠의 실감형을 배가시키는 새로운 센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삼성디스플레이는 15.6인치

IT용 'UHD OLED', 82인치 및 65인치 초대형 8K LCD, 1200픽셀(ppi)의 초고해상도를 구현한 'VR용 디스플레이', 3D 안경 없이도 화면 자체로 입체감 주는 '모바일라이트필드디스플레이(LFD)' 등도 공개했다.

윤재남 삼성디스플레이 마케팅 상무



세계 최초 88인치 8K OLED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화면을 한쪽으로 돌돌 말아 사용
롤러블 디스플레이 등 출시 앞뒀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기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물을 제어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의 반응속도, 대형화면, 센서 기능 등의 기술력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LG전자에서는 2019년 OLED TV(65·77·88인치) 출시가 예정, 5G 적용에 알맞은 OLED 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화면을 한쪽으로 동그랗게 돌돌 말아 사용하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투명 OLED 패널 등 혁신성을 갖춘 제품들도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임경덕 LG디스플레이 실장은 "5G가 상용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스플레이가 모든 사물과 연결되는 시대"라며 "대형 4K·8K 제품을 지속 출시하고 월페이퍼 OLED, 크리스탈사운드 OLED, 롤러블 OLED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삼성전자는 영국 뉴몰든 커리스 매장에 8K QLED 체험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영국서 8K QLED 우수성 소개

뉴몰든 커리스 매장에 체험존 마련

삼성전자가 영국에도 8K QLED 우수성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영국 뉴몰든 '커리스' 매장에 QLED 8K TV 체험존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커리스는 영국 주요 전자제품 유통사다. 뉴몰든 매장은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

장 크다.

삼성전자는 체험존에 QLED TV 화질과 스마트기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게 했다. 고객 반응을 좋다고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 30여개국에 QLED 8K TV 판매를 개시했다. TV 시장 점유율 1위를 공고히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LG 시그니처, 독일서 예술작품과 만나다

'주 계절 샵트 하우스'서
1주일 간 '아트워크' 진행

LG 시그니처가 예술 작품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LG전자는 17일(현지시간)부터 1주일간 독일 프랑크 푸르트 '주 계절 샵트 하우스'에서 'LG 시그니처 아트워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LG 시그니처는 유명 예술작품들과 함께 전시됐다. 인도 출신의 조각가 아니쉬 카푸어, 프랑스 출신 현대미술가 다니엘 뷔랑, 이탈리아 출신 가구 디자이너 프랑코 알비니 등 예술가 작품 사이에 LG 시그니처 OLED TV와 세탁기, 얼음정수기, 가습기, 청소기 등이 자리잡았다.



LG전자는 독일에서 'LG 시그니처 아트워크'를 열었다고 밝혔다. /LG전자

총괄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가 맡았다. 멘디니는 "LG 시그니처 제품이 기술과 디자인의 관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전과 예술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가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LG유플러스, 車 주행 중 5G 송수신 성공

대용량 스트리밍 서비스 테스트
끊김없이 안정적 송수신 확인

LG유플러스는 실험국 허가를 받아 5G 환경에서 차량 주행 중 대용량 스트리밍 서비스 테스트를 실시해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연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마곡 사이언스 파크 주변 도로 지역에서 차를 타고 시내 주행 속도로 이동하는 환경에서 데이터 송신의 전 과정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테스트는 3GPP 표준 규격기반에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르면 이달 말 도심 고속화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서도 동일한 시연을



LG유플러스 직원들이 5G 환경에서 차량 주행 환경에서 대용량 스트리밍 서비스가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테스트 완료는 기지국 장비와 단말 간 연동, 장비 간 동기화, 가입자 인증, 4G와 5G 네트워크 연동, 4G 및 5G 핸드오버 등을 검증했다는 의미라고 회사 측

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테스트는 5G의 핵심기술인 전파 에너지를 빔 형태로 집중해 전파의 효율성을 높이는 빔포밍 기술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이동성을 확인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눈길에서도 끄덕없는 팰리세이드

현대차, 스노우모드 실험영상 공개
지능형 지형 반응 시스템 기술 소개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기대작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에 적용된 기술을 소개했다. 눈길에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는 '스노우 모드'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 모드는 4개의 바퀴 중 일부가 눈길에서 헛돌거나 공중에 떴을 때 상대적으로 접지력이 높은 나머지 바퀴에 동력을 집중시켜 탈출을 도와주는 기능이다.

현대차는 이날 자사 미디어 채널인 'H MG TV'와 공식 SNS(소셜미디어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팰리세이드의 '스노우 모드' 실험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성능 테스트는 북극권에 근접한 스웨덴 북부의 소도시 아르예플로그에서 진행됐다. 이 지역은 겨울에 최저 영하 40



'스노우 모드'를 탑재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눈길을 주행하고 있다. /현대차

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지역으로 눈길과 빙판 언덕 등 자동차 주행에 가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2년 동안 겨울철마다 연구원들을 아르예플로그로 파견해 다양한 노면에서 6000km가 넘는 테스트 주행

과정을 거쳐 최적의 제어 로직을 개발했다"며 "스노우모드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각 휠의 구동력을 신속하게 제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지능형 지형 반응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이 대형 SUV로 다양한 환경에서 레저나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팰리세이드는 현대차 SUV 중 크기가 가장 큰 플래그십(거함) 모델이다.

한편, 팰리세이드는 이달 28일(현지시간) 미국 LA오토쇼에서 전세계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며, 곧이어 국내 고객을 위한 사전계약 접수를 시작한다. 현대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팰리세이드는 운전석에서부터 3열 승객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에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된 디자인과 패키지, 안전·편의 기술을 적용해 대형 SUV시장에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양성호 기자 ysw@

당신의  봄

이 꽃병에선 모든 꽃말이 '안심'

혹시, 소화기 어딘는지 기억하세요?

언제나 당신 가까이 둘 수 있는
꽃병소화기 Firevase를 소개합니다

평소에는 꽃병이자
화재 시 던져서 불을 끄는
꽃병소화기 Firevase

늘 곁에 있는 보험처럼
늘 옆에서 당신을 지킬 거예요



삼성화재 페이스북 이벤트 참여 시 추첨을 통하여 꽃병소화기 Firevase를 드립니다
꽃병소화기 Firevase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samsungfire.com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승인 투척용 소화용구 | 일반화재 초기진화용 | 사용 전 제품 속 품질보증서 필독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



키움증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

키움증권이 제24회 키움증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접수는 2019년 1월 13일까지 가능하며, 대회기간은 오는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다. 참가대상은 대학(원)생, 휴학생이다. 수상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수익률 1위·2위·3위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300만원·200만원·100만원과 인턴십, 해외탐방, 상장이 주어지며, 4위에서 10위 수상자는 아시아 금융 시장 해외탐방과 상장이 주어진다. 11월부터 100위까지는 상장 및 경품이 지급된다. /손영지 기자



한국투자증권 연 5.5% ELS 40억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22일까지 코스피200(KOSPI200), 홍콩H(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멀티 리자드형 'TRUE ELS 11071회'를 총 4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이면 연 5.5%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설정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6개월간 최초기준가의 85% 미만, 또는 설정 이후 12개월간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연 5.5%의 수익 지급 후 상환된다. /김문호 기자



대신증권 해외주식 거래고객 이벤트

대신증권은 20일 대신증권과 크레온을 이용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해외주식 더 달라!'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주식을 한 번이라도 거래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총 5000달러 상당의 해외주식 패키지를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페라리, 스타벅스 등 미국증시에 상장된 우량주식을 90%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벤트는 1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건설사 '주택한파'... 해외 수주로 위기 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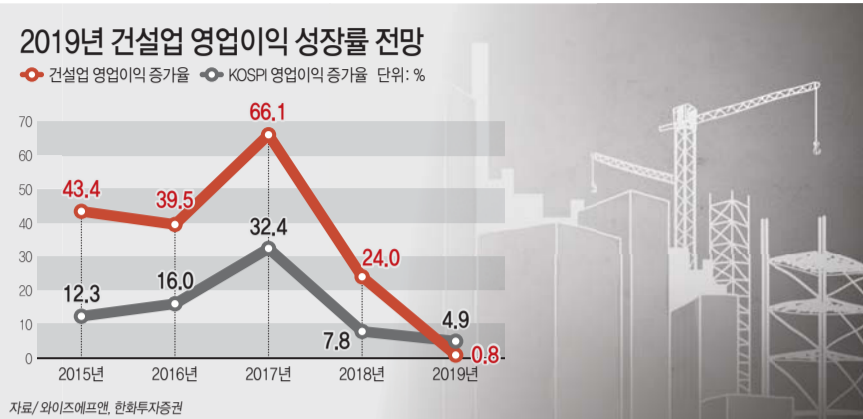
2019 건설업계 기상도

내년 영업익 성장률 0.8%p 그쳐
주택분양 감소... 매출감소 전망
올 해외 수주액, 예상보다 38% ↑
"매출 보다 '마진'에 주목해야"

건설사들이 올 한 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견고한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2019년에는 실적을 받쳐주던 주택 시장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영업이익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 한 해 가뭄이었던 해외수주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수주 등의 영향으로 38%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 주택사업 '흐림' 해외수주 '맑음'

20일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송유립 연구원의 '2019년 연간 전망- 건설, 갈리는 실적 속 살아나는 모멘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건설업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0.8%에 그칠 전망이다. 코스피(KOSPI) 상승률이 4.9%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실적을 뒷받침한 '주택 부문'에 한파가 불어 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송 연구원은 "분양 물량이 2015년 이후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내년부터 건설사의 주택 매출도 감소할 수 있다"며 "아울러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아파트 분양시장의 위축, 정비사업 물량 증가 등으로 마진도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요 5대 건설사(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대림산업) 중에선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내년도 주택 부문의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건설사는 주택 분양 물량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다만 대림산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자체 3개 현장이 내년 중 준공 예정으로 주택 부문의 마진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보는 해외에서 들려올 전망이다. 2019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약 450억달러로 올해 예상 수주액(320억달러) 대비 약 38%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주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2018~19년 중동·북아프리카(MENA)지역에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880억달러, 5200억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2%, 80% 증가한 수치다.

중동 지역에서 수주가 기대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알제리 HMD(Hassi Messaoud) 정유시설(약 25억달러), UAE 가솔린 & 아로마틱스(Gasoline & Aromatics·약 25억달러), 사우디 마르잔 필드 개발(Marjan Field Development·18개 패키지, 총 70억 달러 예산) 등이다.

송 연구원은 "해외 부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은 매출보다 마진"이라며 "대부분의 건설사가 아직까지 저마진 해외 현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해외부문에서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해석했다.

◆ GS건설, 올해는 장밋빛이었는데...

이 가운데 건설사별 실적 기상도는 엇갈릴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주요 6개 건설사의 합산 예상 매출액은 60조5000억원으로 올해(61조3000억원) 대비 1.3% 가량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4조2000억원으로 올해(4조원)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로 예상됐다.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2019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는 삼성엔지니어링(전년대비 59.6% ↑)과 현대건설(22.5% ↑)로 꼽혔다. 반면 대림산업과 GS건설은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7년 하반기 이후 독보적인 해외 수주 성과를 나타내며 수주잔고를 올렸다. 내년 상반기에 이 수주분에 대한 기성이 본격적으로 올라와 향후 1~2년간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현대건설도 주택 부문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부문에서도 저마진 현장 준공에 따른 원가율 개선 등으로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올 한 해 장밋빛 실적을 기록한 GS건설은 내년에 분위기가 조금 처질 전망이다.

GS건설의 2019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9%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해외부문의 환입효과를 제거하면 영업이익 감소폭은 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 부문에서의 마진 개선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올해 매출 기여가 컸던 UAE RRW 현장이 준공되는 영향이다.

대우건설은 주택 분양 물량 감소로 인한 주택 부문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림산업은 수주잔고 부족으로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3개월간 수도권 아파트 7만가구 집들이

국토부, 전국 5.1% 증가 13만 가구 수도권 13% 늘고 지방 2.5% 감소

12월부터 3개월간 수도권에서 7만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 동기(12만5000가구) 대비 5.1% 증가한 13만1807가구(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만969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6만2115가구가 완공된다. 수도권은 내달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비롯해 경기 안성시 당왕동(1657가구) 등 2만5931가구가 입주한다. 2019년 1월에는 평택동삭(2324가구), 남양주다산(2277가구) 등 1만9347가구, 2월 화성동탄2(2559가구), 의왕백운(2480가구) 등 2만4414가구가

집들이 한다. 지방은 오는 12월 김해율하2(2391가구), 포항초곡(2162가구) 등 2만4221가구, 2019년 1월 강원원주(2133가구), 울산언양(1715가구) 등 2만2156가구, 2월 전주덕진(2299가구), 부산동래(1544가구) 등 1만5738가구가 입주한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3만141가구, 60~85㎡ 9만508가구, 85㎡ 초과 1만1158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5%를 차지한다. /채신화 기자

인천 '분양 호황'... 연내 5400가구 붓물

인천에서 연내 5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분양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반면, 인천 분양 시장은 호황을 누리면서 일정대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인천지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모두 6곳(임대, 오피스텔 제외)으로 총 5844가구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44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10월부터 11월 초 사이에 분양했던 7곳 6694가구까지 합치면 4분기 인천 분양물량은 총 1만2135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올해 3분기까지 분양 물량(4293가구)의 3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 10월 첫 분양된 인천 검단신도시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내 아파트들이 예상보다 높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조감도. /우미건설

은 경쟁률로 청약 마감됐다"며 "남북관계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무엇보다 9.13대책에 따른 비(非)규제지역이라는 점에서 풍선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지역 분양 단지 모두 15곳 중 1순위에서 청약 마감한 단지

4분기 물량 1만2천가구 달해 3분기 누적 물량의 3배 수준

는 5곳에 불과했다. 순위 내 미달 된 단지도 6곳이나 나왔다. 하지만 9월 이후 분양한 7개 단지 중 5곳은 1순위에서 전 가구 마감됐고, 나머지도 2순위에서 끝났다. 특히 인천 1순위 평균 24.48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 당첨자 중에는 청약 최고 가점인 84점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대부분 건설사가 연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미추홀구 주안동 228-9 일대 전(前) 주안초등학교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동원개발도 이달 인천 영종하늘도시 A31블록에 '영종하늘도시 동원로알두크'를 공급한다. 우미건설은 12월 검단신도시 AB15-1Q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를 선보인다. /채신화 기자

롯데건설 가사노동 효율성 높이는 '퍼펙트 유틸리티' 개발

롯데건설이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퍼펙트 유틸리티'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퍼펙트 유틸리티는 가사노동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다용도실이라는 뜻으로, 조리 이외의 모든 가사노동에 최적의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세탁물의 수집에서 손빨래, 세탁, 건조 및 다림질 후 분류까지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수거도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세탁 공간은 조리 및 수납공간에 밀려 협소해지는 추세다. 이 가운데 세탁 작업을 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퍼펙트 유틸리티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롯데건설 측은 예상했다.

퍼펙트 유틸리티는 ▲손빨래 및 분리수거 공간 ▲세탁기와 건조기의 설치 공간 ▲건조 후 처리를 위한 다림질 및 수납공간 ▲다양한 물품수납이 가능한 공간 등 4가지 공간으로 구성된다. 세탁물의 보관, 손빨래, 물품수납, 다림질, 건조, 분류작업 등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셈이다.

이 공간은 출입구 2개를 만들어 세대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뤄져 있다.

/채신화 기자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 늦을수록 잠재성장 낮아져”

인터뷰 |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주요 경제 국가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구조개혁(Structure reform)이다. 구조개혁을 늦출수록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itn Cars 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BOK)-BIS 공동컨퍼런스’에서 가진 언론 공동 인터뷰에서 “구조 개혁이란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거나 경쟁을 많이 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인프라에 투자하고 노동 생산성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 다자간 무역을 진흥하는 것 등을 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내년 세계경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과 의견을 같이 했다. IMF는 지난 9월 올해 세계경제전망을 기준 3.9%에서 3.7%로 하향한 바 있다. 내년 전망도 3.7%로 낮

태평양 시장서 경쟁환경 만들어야 인프라 투자해 다자간 무역이 ‘답’

췌었다.

글로벌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무역분쟁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 높이고 투자 및 소비 둔화, 가치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무역분쟁은 투자 둔화, 소비 변화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의 미·중 간 협상을 기대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과거 멕시코와 트럼프 간 협상 전례에서 보듯 미·중도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미·중간 무역분쟁 시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성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을 저해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밑그림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의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미 금리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

체적으로 잘 대응해 왔다”며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그동안 중앙은행들이 비전통적인 방법을 써왔고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되돌리는 시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역시 거시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을 잘 조절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안정돼 있다”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적절한 통화정책 등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BIS 이사회 멤버에 들어온 데 대해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일본, 인도였는데 여기에 한국이 들어오면서 BIS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아시아의 무게가 높아졌다”며 “한국과 BIS가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BIS 이사회는 신임 이사에 이주열 한은 총재를 선임했다. 한은 총재가 BIS 이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제주항공, 5조원 규모 ‘737MAX’ 50대 도입

단일기종 최대규모 확정구매 40대 2022년부터 인도... 新노선 발굴



제주항공 737 MAX 항공기.

제주항공이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 MAX 기종 항공기 50대를 도입하고 신규 노선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다.

제주항공은 보잉사의 최신기종인 737 MAX 50대를 오는 2022년부터 인도 받는 내용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확정구매 40대와 옵션구매 10대 구매 계약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공시 가(카탈로그 가격)를 기준 약 44억달러(약 5조원) 규모다.

이번에 제주항공이 계약한 50대의 물량 중 확정구매 40대는 단일기종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사가 체결한 항공기 계약 중 최대규모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신규 항공기 세 부 도입 계획은 내년 초 중장기 전략 발표에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은 이번 항공기 도입계약을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B737-800NG를 차세대 기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항공은 운용리스를 통한 항공

기 운용방식을 직접 보유로 바꿈으로써 임차료를 줄이고, 연료 효율을 개선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운용을 통해 연료비와 정비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737MAX는 보잉이 개발한 차세대 주력기로 기존에 운용 중이던 B737-800NG에 비해 운항거리가 길어지고, 연료효율은 14% 높다. 새로 도입되는 737MAX 8은 189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운항거리가 6500km로 현재 운용중인 B737-800NG에 비해 1000km 이상 더 멀리 갈 수 있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노선 확대도 가능하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이번 계약에 일정 물량을 최대 230명이 탑승 가능한 737MAX10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

시켰다고 전했다. 운항거리 확대를 통한 새로운 노선 발굴과 함께 편당 탑승인원을 늘림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슬롯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B737MAX 도입계약은 차세대 항공기로 자연스럽게 기단을 교체하고 이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적항공사로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항공은 운용리스 35대와 올해 구입한 신조기 3대 등 모두 38대의 B737-800 단일기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연내 1대를 더 들여와 모두 39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내달 첫 삽

포천시 남양주시까지 약 17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 경기도 포천시~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9일 승인했다. 이 구간은 연장 28.71km로 총 사업비 7702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중 착공, 오는 2023년 개통이 목표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파주~포천(2023년 개통예정) 및 화도~양평(2020년 개통예정) 노선과 연계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하게 된다. 이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여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를 이용해 포천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하면 기존도로에 비해 통행거리는 약 21km, 통행 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 포천~화도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JCT)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포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구간착공



시 내촌면을 직접 연결하는 내촌 나들목 등 5개의 나들목(IC)을 설치해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포천~화도고속도로는 포스코건설 등 12개사로 구성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5월 25일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채신화 기자

지난달 주택거래량 전년 대비 46% 증가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9만 2566건(신고일 기준)으로 작년 동월 대비 46.4%, 전월 대비 21.6% 각각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계약 후 60일 이내로, 10월 거래량 통계에 9·13대책 발표 직전인 8~9월 초 거래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총 5만 4823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74.1%, 전월 대비 11.4% 각각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거래량은 총 1만8787건으로 지난해 10월(8561건) 거래량보다 119.4% 급증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주택거래가 위축되며 작년 10

월 거래량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달 9·13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울 지역의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9월 신고분(1만 9228건)에 비해서는 2.3% 줄어 들었다.

지방의 주택 거래량은 3만7743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19%, 전월 대비 40.2% 각각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총 6만4559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61.1%, 연립·다세대는 1만6715건으로 29%, 단독·다가구는 1만1292건으로 11% 각각 늘었다.

가을 이사철 등의 이유로 전월세 거래량도 많아졌다. 전월세 거래량은 계약 후 곧바로 확정일자를 비롯한 거래 신고가 이뤄져 계약부터 신고일까지 시차가 거의 없다. /채신화 기자

HUG, 미분양관리지역 지원 ‘주택업계 CEO 간담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경남 교원단체 총연합회 빌딩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업계 CEO(최고경영자)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주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경남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9개 주택업체 CEO와 경남도청 고위관계자가 참여했다.

HUG는 미분양지역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미분양관리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HUG 지원 사항을 소개했다.

HUG는 ‘후분양대출보증’과 ‘모기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일 경남 교원단체 총연합회 빌딩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업계 CEO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HUG 이재광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HUG

보증’을 통해 미분양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 미분양지역의 임차인이 전세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도

록 하고, HUG가 임대인 대신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특례제도를 이달 초 도입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빅스비 생태계 확장 가속도 “2년 내 수십억 기기에 AI 탑재”

삼성 '빅스비 개발자데이'

'기기·언어·서비스'
세가지 확장성 제시
AI 등에 24.8조 투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정의석 부사장이 '삼성 빅스비 개발자 데이'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빅스비'를 삼성의 소프트웨어 비전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영등대로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코엑스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빅스비 개발자 데이'를 열고 빅스비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빅스비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비서로 작년 3월 스마트폰 '갤럭시S8·8플러스'에 처음 적용됐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정의석 부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삼성은 이미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 중이고 빅스비로 대표되는 기능이 미래 경쟁력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까지 삼성이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빅스비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매년 5억대가량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빅스비가 수십억개의 제품에서 동작하게 된다.

또 그는 "삼성은 AI, 5G 등에 2020년까지 220억달러(24조8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라며 "이런 투자를 통해 보다 빠른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상품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빅스비의 개발을 이끌

어온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빅스비가 추구하는 미래'는 세 가지의 확장성을 통해 구현될 전망이다.

첫 번째는 '기기의 확장'이다.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TV, 냉장고, 에어컨 등 삼성의 모든 기기에서 빅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회사의 제품일지라도 빅스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언어의 확장'이다. 빅스비는 현재 한국어, 미국 영어, 중국 베이징어를 지원하는데 삼성은 몇 달 내로 영국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를 추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 부사장은 "향후 개발자들이 특정 언어로 출시한 앱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서비스의 확장'이다. 삼성은 개발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사용하기 편한 개발 환경과 도구를 만들어 개발자에 제공함으로써 전문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지수 상무는 "삼성이 빅스비에 전문화된 투자를 하고 세계 각국에 AI 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는 '인터랙션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기술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20년 후 젊은 세대가 2018년 현재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루는 영상을 보면 '과거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일일이 터치하면서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삼성은 AI 같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바탕으로 혁신적 개발을 통해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비브랩 최고기술책임자(CTO) 아담 사이어 상무는 "(빅스비와 같은)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가 앞으로 웹이나 모바일만큼이나 중요해질 것"이라며 "지능형 어시스턴트 마켓은 아직도 젊고 미성숙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후에는 다양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기술·비즈니스 세션에서는 빅스비 개발자 도구 활용 방법, 빅스비 사용자 경험(UX) 설계, 개인화 서비스 구현 등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새로워진 빅스비의 차별화된 부분이 상세하게 논의됐으며 고플레이트, 벅스 등 파트너사들의 협업 사례 등도 공유됐다.

현장에 참석한 개발자들이 빅스비 개발 도구를 활용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직접 개발 환경을 체험해 보는 코드 랩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삼성 빅스비 개발자데이'에 참석한 개발자들이 빅스비 코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KT, '5G 시대'도 협력사와 함께 걷는다

2018 파트너스 데이

KT가 중소협력사들과 함께 하는 5G 시대를 꿈꿨다.

KT는 20일 서울 데이터호텔에서 '2018년도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파트너스 데이는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KT와 협력사간 행사다. 협력사를 격려하고 협력사 우수 기술 전시를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업을 강

화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KT는 협력사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하자는 의지를 강조했다.

5G 론칭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자방향 및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도 체결하면서 분위기를 돋웠다.

KT는 동반성장 추진 계획으로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5G 사업 초기부터 중소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

며, '글로벌 사업 협의체'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돕는 등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KT는 12월 1일 시작하는 5G 상용화 서비스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결정적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또한 중소 파트너사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5G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모터스튜디오오양 1층에는 현대차의 주력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Q 르포 | 현대모터스튜디오오양 가보니

생산 과정부터 시승까지 현대차의 모든것 한곳에

자동차 생산과정 한 눈에
에어백 등 안전기술 체험
현대차 주력 라인업 전시



충돌테스트 마친 차량 모습. /정연우 기자

"20시간에 걸친 작업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한 대의 차량이 생산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하루 5400대의 차량이 생산되고 있다. 충돌과 주행을 포함한 20가지 테스트를 진행한 끝에 한 대의 차량이 만들어진다. 그만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

현대모터스튜디오오양은 현대자동차의 공장 연구소를 옮겨놓은 것처럼 강판생산, 용접, 도장, 조립 등으로 이어지는 차량 제작의 전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과정을 관람하며 용접을 담당하는 지능형 로봇에 눈길이 갔다. 사람 팔처럼 관절을 가진 기계가 능숙한 솜씨로 차체를 다루고 있었다. 자동차 생산에서 강판생산과 용접, 도장작업은 로봇이 담당하지만 조립과정은 세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

람이 함께 참여한다.

현대모터스튜디오 안에서는 현대차가 생산한 에어백 작동과 정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전시장 벽에 걸린 에어백을 손으로 누르니 수축이 되고 손을 떼자 다시 팽창했다. 에어백이 터지는 시간은 약 0.03초다. 에어백은 운전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품인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1층에 있는 전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특별히 채용한 자동차 전문가 '구루'가 관람객들에게 현대차의 주력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제네시스 G70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으니 구루가 다가왔다.

그는 "G70은 시속 100km에 도달하는데 4.8초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차로 정평이 나 있다"며 차종의 특징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4층에 있는 루프테라스 공간은 2~30대를 위한 문화, 예술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생산 과정과 안전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프로그램도 있다.

관람객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월드랠리챔피언십(WRC) 랠리를 4D로 즐기는 라이딩 체험이었다.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장치와 스크린을 통해 실감나게 상영되는 3D 영상이 WRC 랠리에 참가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한편 현대모터스튜디오오양은 지난해 4월 정식 개관했다. 연면적 6만3861㎡로 지하 5층~지상 9층 규모다.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은 26만명이다.

현대모터스튜디오오양은 다양한 연령대 고객들의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해 어린이 투어 확장 프로그램, 중·고등학생 대상 직업 체험 투어, 테마 시승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사납금 없는 신개념 택시... '마카롱' 초읽기

KST모빌리티 12월 출시예정
월급제에 인센티브제도 운영



마카롱 택시.

국내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논란과 요금인상 등으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 택시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개념의 혁신적인 택시 전문 브랜드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택시 전문 브랜드 '마카롱 택시'다.

택시 기반의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모빌리티(대표 이형열, 이하 KSTM)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 드라이버와 예약 중심의 호출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 택시'를 12월에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카롱택시는 우선 양질의 고객

마카롱 택시 기사들의 급여체계는 월급제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이용자들의 서비스평가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KSTM 관계자는 "바쁘게 더 많은 손님을 태우지 못해도 안전하게 더 적은 운행을 하는 것이 사고율과 고객만족도 측면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운행품질 외에도 불필요한 말걸지 않기, 내비게이션대로만 운전하기, 좁은 골목길 앞에서 내려주지 않기 등 고객들의 크고 작은 불만들을 세심하게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수소택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과 수요응답형 운송수단을 준비하는 완성차 업체와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런던의 블랙캡과 같은 택시 전용모델까지 추진하고 있다.

/양성문 기자 ysw@



NEW TECHNOLOGY FORUM

제3회 뉴테크놀로지 포럼 | 5G, 차원이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 09:00 - 11: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5G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모든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변화합니다. 이전보다 월등하게 빨라진 속도와 엄청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난 1~2회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의 시대의 도래를 미리 살펴본 메트로미디어는 이제 5G의 세계를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5G가 열어갈 세상은 어떤지, 이를 위한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5G 시대를 메트로미디어 독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행사개요 및 문의

행사명 : 제3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주 제 : 5G, 차원이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9:00~11:3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주 최 : 메트로미디어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SW-ICT총연합회

등 록 :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 (사전등록 무료) / 현장등록 5만원
forum@metroseoul.co.kr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필수 기입)

문 의 : 제3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 721-9826

“캐디 등 고용보험 의무가입보다 자영업처럼 자율방식이 더 타당”

특수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논란
비용·구조조정 등 우려 목소리 ↑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놓고 비용,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대리운전 기사, 워킹비즈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의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은 서울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 적용!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강제 의무가입보다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 월평균 소득 분포(2017년 기준)〉

구분	50미만	50~100	100~200	200~500	500초과
생명보험	18.2%	10.1%	20.6%	33.4%	17.7%
손해보험	19.7%	10.3%	21.0%	32.4%	16.6%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분포(2016년 상반기 기준)〉

구분	100미만	100~200	200~300	300~400	400이상
임금근로자 (1,946만 7천명 기준)	11.2%	34.6%	25.6%	14.4%	14.2%

자영업자 특례제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진입이 비교적 자유롭고 고용보험의 보호목적인 실업의 의미가 비교적 약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자발적인 이직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방식의 임의가입 형태와 유사한 자율적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영업방법이나 영업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가적

요소를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계사라는 직업의 본질적 성질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적용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독립판매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7000만원, 4대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첫째줄 가운데)이 2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1회 신한금융그룹 여성리더 쉬어로즈 컨퍼런스'를 열고, 행사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금융 여성인재 육성 ‘쉬어로즈 컨퍼런스’

신한금융지주는 2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그룹 내 여성 부사장 이상 임직원과 여성 오피니언 리더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신한금융그룹 여성리더 쉬어로즈 컨퍼런스(SHeroes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조용병 회장이 강조하는 그룹 내 여성 리더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 출범에 이은 두 번째 여성 리더 역량강화 행사다.

이날 행사는 최근 멘토링 프로그램이 종료된 '신한 쉬어로즈 1기'의 사내 여성 멘토 위촉, 전문가 강연, 여성인재 경쟁

력 강화와 관련된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조 회장은 이날 “H(Human)는 사람을 남기는 리더, E(Expansion)는 리더로서 시선의 높이 확장, R(Role model)은 후배들의 롤 모델, O(Oblige)는 리더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등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신한금융은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이 종료된 '쉬어로즈 1기' 29명과 내년 선발 예정인 '쉬어로즈 2기'를 통해 그룹 내 여성인재의 코칭과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여성인재 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l@

화장품시장 위기 뚫고...

중국인 겨냥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연작 내년 백화점 등 10개 매장 오픈
비디비치 연매출 1000 메가브랜드로

‘럭셔리’ ‘고성능’ ‘합리적인 가격’ 세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자체 화장품 브랜드가 매출 상승세를 타며 순항하고 있다. 울퉁퉁 화장품 업계가 중국 시장에서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웃었다. 중국인을 겨냥한 프리미엄 전략과 마케팅이 제대로 통한 것이다. 자체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는 연매출 1000억을 돌파한 메가 브랜드로 도약했고, 새롭게 선보인 ‘연작’은 론칭하자마자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YUNJAC

◆3년 공들인 ‘연작’ 해외 시장 겨냥

신세계 그룹의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지난달 신규 화장품 브랜드 연작(YUNJAC)을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1층에 본격 론칭, 이달 13일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센텀시티점에 단독 매장을 오픈했다.

연작은 신세계인터내셔널이 3년 동안 공을 들여 개발한 자체 화장품 브랜드다. 세계 최고의 화장품 제조 회사 인터코스와 기술 제휴를 맺었으며, 고급 한방 원료의 효능을 과학기술로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따르면, 연작은 유명 모델을 쓰지 않고도 13일까지 목표 매출을 449% 달성했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모델의 이미지가 아닌 품질로 승부하고자 한 전략이 적중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강남점과 센텀시



연작 신세계본점 매장전경

/신세계인터내셔널

티점이 각각 서울과 부산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만큼 연작의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핵심 지역의 백화점과 면세점에 10개 이상 매장을 열 계획이다.

연작은 개발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했다. 한방 원료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해 기존의 한방 화장품과 전혀 다른 글로벌 감각의 제품을 완성

VIDIVICI

했다는 평가다. 연작은 2020년 말 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디비치’ 1000억 매출의 메가 브랜드 등극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대표 코스메틱 브랜드 비디비치는 연간 누적 매출이 1003억 원을 기록하며 메가 브랜드에 등극했다.

지난해 매출 229억원 대비 5배 이상 성장한 놀라운 성과로, 연말을 한달 이상 남겨두고 목표 매출을 조기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비디비치는 올 연말까지 12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비디비치는 2012년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인수한 토종 화장품 브랜드다. 인수



비디비치 베스트셀러 제품컷 /신세계인터내셔널

후 끊임없는 투자와 제품 개발을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5억 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올해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화장품 사업 중 단일 브랜드로는 가장 큰 매출을 올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중국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을 분석해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 모델(한채영, 송지효)을 선정한 것이 연이은 히트를 치면서 중국 내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비디비치는 내년 매출 목표를 1500억 원으로 올리고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또 북극발 한파? 추워야, 고마워!”

유통업계, 비수기에 찾아온 활기

지난달 평년 기온이 5~6도를 밑도는 때 이른 한파에 모두가 한껏 움츠러들었지만, 유통가 만큼은 활기찼다.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 룬패딩을 비롯한 아우터와 핫팩, 전기히터 등 방한용품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통합멤버십 브랜드인 L.POINT는 3800만 회원의 소비트렌드를 측정하는 '2018년 10월 L.POINT 소비지수'를 20일 발표했다. 전년 동월 대비 10월 L.POINT 소비지수는 7.1% 상승을 기록했다.

◆북극발 한파, 공공 닫힌 지갑 열어

직장인 유모씨(30세)는 최근 전기장판을 새로 구입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일찌감치 월동준비에 나선 것이다. 또 백화점과 주요 온라인몰에서 보온성 의류를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겨울 아우터도 미리 여러 벌 장만했다.

대표적인 쇼핑 비수기인 10월에도 불구하고 유통가가 계절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관련 제품의 매출이 급상승한 것이다. 백화점(1.3%)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49.5%), 편의점(1.6%), 가전전문판매점(1.0%) 등 유통채널 전반에서 전년 대비 소비 상승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 달 진행된 가을 정기 세일 매출이 지난해 대비 10.2% 증가했다. 동절기 의류 매출은 20% 이상 증가했으며, 고가 상품인 모피 매출은 4.9%, 아웃도어는 28.0% 증가했다.

이런 한파는 편의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절기 대표 상품들이 벌써부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편의

점 상품군별 소비지수에 따르면 일찍 추위가 찾아온 탓에 코코아의 소비가 109.5%로 크게 증가했다. 이 외에도 온장조리 식품과 호빵/편빵의 소비 역시 각각 20.0%, 11.9%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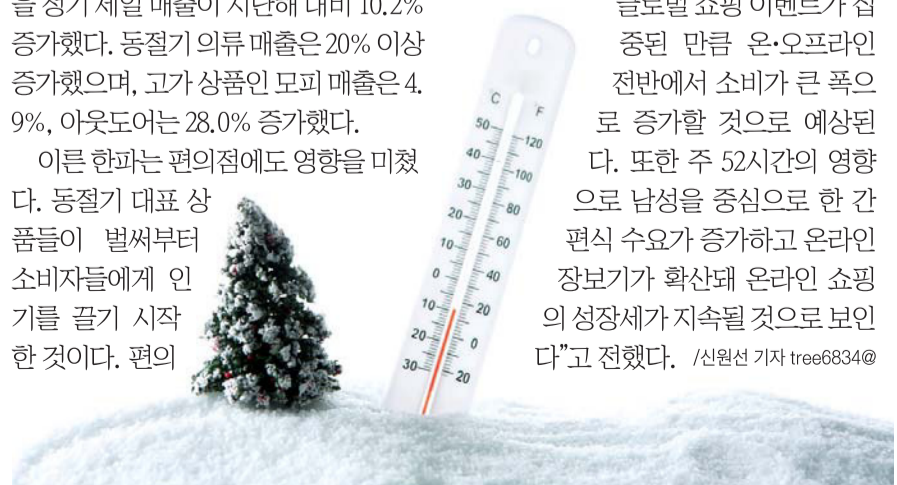
◆지금 안 사면 손해! 온라인 쇼핑 성수기
인터넷쇼핑은 전년 동월대비 49.5% 상승하면서 유통채널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인터넷 상품군별 소비지수에 따르면 여성코트와 남성 등산패딩 소비가 각각 37.9%, 36.4% 증가했다. 또한 온수매트(119.5%), 전기요(24.1%) 등 난방가전도 큰 신장률을 보였다.

미세먼지까지 극성을 부리자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생활필수품 소비가 크게 확대됐다. 쌀과 우유 소비는 각각 139.2%, 99.2% 증가했으며, 환절기 영향으로 위생 관리를 위한 핸드워시/손세정제 역시 118.1%로 크게 상승했다.

롯데멤버스 황윤희 빅데이터부장은 “지난 10월은 갑작스러운 추위로 보온성 의류 및 난방가전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아동 룬패딩이 인기를 끌면서 ‘골드키즈’에 대한 수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11월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쇼핑 이벤트가 집중된 만큼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 52시간의 영향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강력범죄 전과자 20년간 택배업 종사 금지

文 대통령, 생활적폐·국무회의

“기업 지원하는게 정부의 소임
車 부품업체 지원책 모색돼야
아세안, 中·美 이은 수출 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의 실적이 개선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 실적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 시장 점유율이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무역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으로 일궈낸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라

며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부족과 금융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자동차·조선업체 등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연

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산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제작비 금융이나 선수금 환급보전 등을 지원하는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개발을 지원하는 방법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13~18일 열린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 소회를 밝히면서 “신남방정책에 아세안, 인도, 호주 등은 확고한 협력 의지를 밝혀줬다. 우리도 이 국가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 확대에)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몇 가지 통계만 보더라도 아세안(ASEAN)과 인도는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이들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규모와 수출규모 면에서 중국 대

음으로 큰 제2의 시장”이라며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자 한류문화가 가장 먼저 확산하는 통로이기도 하다”며 “베트남만 봐도 인구 1억명에 경제성장률은 7%대를 보이고 있다. 작년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42%, 수출액은 46% 증가했으며 이미 우리에게 중국과 미국에 이은 제3의 수출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해 최장 20년간 택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하·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도 명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판사 탄핵 소추 與 “즉각시작” 野 “시기상조”

자유한국·바른미래 국회일정 거부
검찰수사 ‘탄핵 판사 명단’ 불투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판사들의 사법농단 연루자 탄핵 검토 의견으로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반쪽짜리 탄핵’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논의에는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했다. 대표판사 9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 찬성이 나왔지만,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반쪽으로 갈라진 사법부 내 여론을 보여주고 있어 법관 탄핵 시 내용으로 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근거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판사 파면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

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현재 총원 299명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을 합치면 과반인 148석에 이른다.

다만 112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과 30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확히 누구를 탄핵 명단에 올려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는 현재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뿐이다.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도 혐로를 견고 있다. 중앙지검은 19일 사법농단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게 사법농단을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 못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범철 기자 joker@

軍 드론 개발, 예산만 날릴수도



전문기자 칼럼

문형철 (국방전문)

정부가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군 당국도 ‘드론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실을 깨닫지 못한 원대한 꿈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자조적이라고 비난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군사기술 강국 미군도 실현하지 못한 기적 문제를 우리 군이 단기간에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육군은 전장의 승패를 바꿀 5대 계임체인저 중 하나로 ‘드론봇’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봇은 드론(Drone·소형 무인기)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지능화된 탐지 능력을 바탕으로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드론봇이 소부대 전투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형화된 드론봇이 은밀기동을 유지한 채 소총 등을 이용해 적을 타격해야만 실질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페이로드의 (화물 등의 중량의 합계) 한계가 있는 소형 드론봇에 사격시 발생하는 반동 등을 줄여주는 자세제어장치, 원거리에서 조준사격이 가능한 사격통제 장비, 총기와 탄약을 적재하면 사실상 기동자체가 힘들어진다.

설령 드론봇을 대형화해 페이로드를 늘린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커진 덩치로 인해 적으로 부터 탐지되기 쉽상인데다, 안티드론 시스템에 걸려 무력화되기도 쉽다.

무엇보다 인간이 아닌 기계가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안전성이다. 드론봇이 조작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폭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정보기관에서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소형 드론을 전투체계인 드론봇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전투가 아닌 수송용 드론봇은 어떨까?

이 또한 쉽지 않다. 페이로드의 한계, 비행거리 등의 문제를 가진 소형 드론봇이 실전에서 무거운 탄약과 장비를 적응성 있게 실어 나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미군은 어떻게? 그들은 드론봇에 대한 개념부터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아프카니스탄의 산악지역에서 보급의 어려움을 겪었던 미군은 짐을 싣고 병력을 따라 움직이는 견마로봇의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부 모듈만 교체하면 전투도 가능하다.

미군은 유인헬기를 무인화해 페이로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현실적인 극복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싸움과 기술의 달인 미국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군은 한걸음에 천리를 가여하는 것 같다.

자칫 국민의 혈세가 증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이미 우리 군은 미국이 추진하다 포기했던 OICW(Objective Individual Combat Weapon)를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사례가 있다.

무려 6.5kg의 중량과 K-2 소총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의 명품 소총 ‘K-11’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기자에게 “이건 역기 수준의 돈먹는 총”이라고 말한 적 있다.

K-11은 내구성, 사격통제장치 이상, 20유탄의 위력 등이 문제가 돼 왔다. OICW를 추진하던 다수의 국가들은 피카티니 레일 시스템에 임무에 맞게 총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captinm@

국방부, 3552억 투입 해·강안 철책 철거

군부대 무단사용 사유지 보상·매입

군 경계시설용 철책선 중 일부가 추가로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내년부터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던 사유지 보상·매입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군 경계시설을 두고 불편함을 호소해 온 일부 주민들의 요청을 군 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하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자 3552억원의 국비를 들여 전국의 해·강안 경계철책 및 미사용 국방·군사시설 철거·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이유로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3552억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강안 경계철책(497억 5300만원), 유휴 국방·군사시설(2956억원), 해·강안 경계초소(99억30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경계철책 413.3km 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km 이외에 169.6km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2km를 철거하고, 군사목적상 중요한 129km의 철책은 유지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경계철책 철거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은 주민 생활 개선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인 병력감축을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전방 해안경계 부대 지휘관 출신인



지난 2015년 4월 군부대와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강릉시 연곡해변의 군 철책. /문형철 기자 captinm@

한 예비역은 “철책제거와 함께 TOD(열상감시장비), 중·장거리 및 단거리 사각 감시장비를 도입해 병력 중심의 경계에서 장비 중심의 경계로 전환 될 것”이라면서 “장비중심의 경계도 중요하지만, 과학장비가 자연현상에 절대 만능은 아니며, 경계부대의 책임구역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경희사이버대, '미래 대학' 육성 맞손

학점·교원·캠퍼스 등 공유 이어
교육·연구·학생·행정분야 협력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방향 제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강화 기대



양교법인 경희학원의 두 대학인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가 지난 13일 서울캠퍼스에서 양교 연계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전면적·본격적 협력을 시작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2030년 대학 절반이 사라지고,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칼리지 등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오늘 양교 협력은 경희대의 성장과 생존을 찾는 기회가 되고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박영식 경희대 대외협력부총장)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가 학점·교원·캠퍼스 공유에 이어 행정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규 학위 대신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변화하는 국내 고등교육 트렌드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두 대학인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13일 서울캠퍼스에서 양교 연계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전면적·본격적 협력의 시동을 걸었다. 두 대학은 기존 교육·연구·학생 분야에 이어 행정분야 협력을 통해 미래 대학 만들기 힘을 합치기로 했다.

두 대학은 앞서 지난 2001년 경희사이버대 개교시부터 학생들의 학점교류, 교원 공유, 캠퍼스와 시설 공유를 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기에 행정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최근 대학 교육의 트렌드가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런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교는 이를 위해 ▲교육·연구 등 학술 교류 ▲학점 및 실습 등 학생 교육지원 ▲콘텐츠·설비·시설 등 인프라 전반 ▲교원·직원 교류 ▲문화프로그램 공동 개최 ▲기타 양교 발전을 위한 각종 교류·협력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같은 학교법인 소속인 두 대학의 교류 협력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 대학 주요 교무위원과 부처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교류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희대에서는 이호창 서울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해 강근 국제캠퍼스 부총장, 박영국 대외협력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고, 경희사이버대에서는 김혜영 부총장과 김지형 기획재정처장, 신봉섭 교무처장, 백은영 글로벌·대외협력처장 등 주요 인사가 배석했다.

이호창 서울캠퍼스 부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교육 철학과 가치는 물론 UI (University Identity)와 캠퍼스를 공유

하는 양 대학은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연계 협력을 시작한다”면서 “교육뿐 아니라 행정 분야 협력도 추진하고,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 대학이 미래 교육을 위해 전면적으로 힘을 합치자”고 교류 협력의 의의와 의지를 드러냈다.

두 대학의 교류 협력은 국내 첫 사이버대 개교 이후 온라인 교육 분야를 개척해 온 경희사이버대의 혁신 교육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영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2001년 최초의 사이버대 개교 이후 18년간 온라인 교육이라는 새 분야를 개척해왔다”면서 “사이버대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양교 동반성장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대학의 교류 협력은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는 물론, 학령 인구 감소와 학위 중심 대학 교육의 위기 속 지속가능한 미래 대학 교육의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국 경희대 대외협력부총장은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2030년 대학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인용하면서 “대학의 위기라고 불리는 이 시점에서 코세라, 유다시티 등이 추진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칼리지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오늘 협약은 경희대가 성장하고 생존의 길을 찾는 기회이며, 변화에 대응하고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고등교육계에서는 기존 학위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대학의 강화를 일반에 공개하는 온라인공개강좌(MOOC·Massive Open Onlike Course)가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온라인공개강좌 사이트인 코세라(Coursera)를 통해 전세계 수천만 명이 대학 강의를 듣는다. 포스텍도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코세라에 강좌를 개설, 수강생에게 전자수료증을 준다. 국내에서도 교육부 주도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케이무크(K-MOOC)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케이무크 학점을 인정받는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2030년에 현존 대학 절반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근거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미래인간과학스쿨(재난방재과학 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한방건강관리학과,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등을 신설하고 문화예술 경영전공 등 미래지향적 학과 개편을 통해 3개 학부, 34개 학과(전공) 체계를 마련했다. 이들 학과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국내 첫 대학생 로봇게임단인 광운대 로빛 소속 학생들이 지난 15일~17일 대구 엑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2018 대구국제로봇산업전 'R-BIZ 챌린지, 터틀봇3 오토레이스' 부문에서 1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금상), 3위 제어로봇시스템학회회장상(동상)을 수상했다. /광운대학교

광운대 로봇게임단 '대구국제로봇산업전'서 2관왕

광운대학교(총장 유지상)는 로봇게임단 로빛(RO:BIT)이 지난 15일~17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2018대구국제로봇산업전'의 'R-BIZ 챌린지, 터틀봇3 오토레이스' 부문에서 1위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금상)과 3위 제어로봇시스템학회회장상(동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 R-BIZ 챌린지는 전 종목 예선전에 500여 팀, 1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대회로 본선에만 205팀 618명이 참가했고, 그 중 광운대 학생들이 참가해 수 상한 터틀봇3 오토레이스 부문에는 예선전에 70여 팀, 본선에는 19팀이 진출해 3일간 경기를 치렀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박재홍 교수 제8대 한국발레협회 회장에 선출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예술학부 박재홍 교수(사진)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외곡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발레협회 임시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20일 밝혔다. 박 교수는 3명의 후보자 가운데 55%의 득표율로 회장에 선출됐다.



박 교수는 “명예로운 협회, 역량 있는 협회, 네트워크 협회로 회원과 함께하고 발레계와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발레협회로 거듭나겠다”고 신임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

박 교수는 한국무용과학회 회장, 한국발레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번에 당선된 회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년이다.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와 지도위원으로 활약하며 러시아키로프발레단, 캐나다 로열위니펙발레단 객원으로 활동한 박 교수는 현역 시절 한국무용협회 신인무용콩쿠르 금상(1986), 최우수만우자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하세요”

한국장학재단 12월17일까지 접수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8일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내년 신입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재학기간 중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해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재학생들은 이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

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1차 신청 재학생 중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학생에 한해 고지서 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으로 우선감면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기 부담하면 되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마감일(12월 17일)에는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하는게 좋다.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20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생의 거주지와 가족관계 정보가 행정자치부나 대법

원 공적정보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받았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으면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 등 심사 통과자에 한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과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고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대학생 “출세의 조건 1위 경제적 뒷받침”

알바몬-잡코리아 1403명 설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출세나 성공하기 위해서 학벌보다는 경제적 뒷받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알바몬이 잡코리아와 함께 대학생 1403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3.7%가 성공의 조건으로 ‘경제적 뒷받침’을 꼽았다.

3년 전 같은 조사에서 성공의 조건 1위로 꼽힌 ‘학벌 및 출신학교’는 20.2%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대학생들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14.0%), △인맥 및 대인관계 능력(12.9%), △집안의 배경(8.6%)이 차례로 5위 안에 올랐다. 이밖에도 △성실성(5.6%), △지적 능력(4.2%), △시류 및

흐름을 읽는 안목(3.9%), △운(2.7%), △외모(2.0%), △출신지역(1.2%) 등을 성공의 조건으로 꼽았다.

‘개천에서 난 용’이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길 수 있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같은 조사 결과(14.9%)에서 약 4%p 하락한 것이다. 반면 ‘사실상 이길 수 없다’(33.6%)는 응답은 ‘이길 수 있다’는 응답의 약 세 배 많았고,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섞인 응답(55.7%)이 가장 많았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3년 전보다 ‘집안의 배경 없이 스스로 성공을 일구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한편 대학생 5명 중 4명(82.1%)은 ‘취업 핸디캡이 있다’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현대차

‘전공 제한 NO’ 정비 인턴 채용

현대자동차가 이달 28일부터 2018년 현대차 정비 인턴 채용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이번 채용을 통해서 본사 및 전국 22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고장을 진단하고, 고난도 정비를 수행할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현대차는 채용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동차 전공자뿐만 아니라 IT, 전기,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모집한다.

28일 오전 11시부터 12월 10일 오후 2시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성민 기자 ysw@



무자비한 힘이
나타났다!

통다리살 치킨버거

T-REX

티렉스 ₩3,500

New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안면윤곽술



홍중욱 원장의
성명이야기

최근 작고 가름한 V라인 얼굴형이 동안의 기준이 되면서 얼굴을 작게 만들어 준다는 'V라인마사지'나 'V라인화장품', 'V라인미용기기', '셀프성형보조기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으로 얼굴 골격을 축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셀프성형보조기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뼈성장장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앞광대나 옆광대, 사각턱이 도드라지게 발달한 이른바 '큰바위 얼굴'의 경우 심하면 외모 콤플렉스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선천적으로 골격 자체가 커서 고민이라면 안면윤곽술과 같은 수술요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안면윤곽술(facial bone contouring surgery)'은 얼굴 뼈 모양을 변형시켜 얼굴형 자체를 바꾸는 수술로 광대뼈 축소술, 사각턱수술, 턱턱성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술방법은 얼굴 뼈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골격 없이 매끄러운 V라인 얼굴형을 원한다면 광대뼈 축소술과 사각턱 축소술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볼살이 없는 편이라면 노안외모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가지방이식술을 통해 양쪽 뺨에 볼륨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

반면 앞으로 푹 튀어나온 광대는 자칫 심술긋고 화난 인상을 풍길 수 있어 광대뼈 축소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광대뼈 축소술은 얼굴의 골격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수술 후 이미지 변화가 가장 크고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수술방법이 워낙 공격적이고 고난이도의 술기를 요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광대뼈 축소술을 할 때 수술시간이 짧고 수술방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입안절개를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안절개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보니 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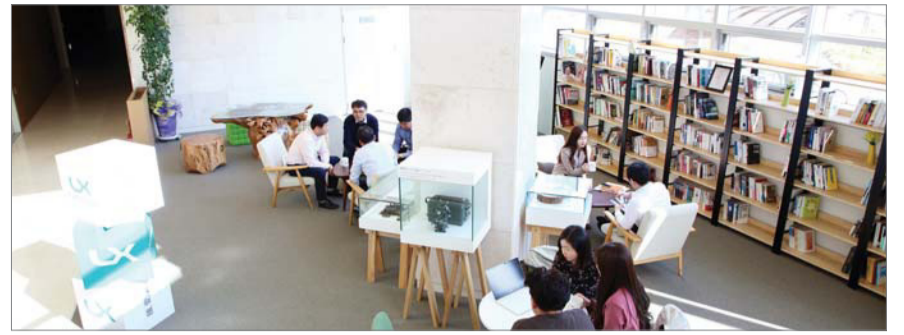
또한 얼굴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임상경험이 부족하면 수술과정에서 안면신경을 건드릴 위험이 높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뼈를 절골하다보니 안면비대칭

이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불유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입안절개를 시행할 경우 두피절개를 시행했을 때보다 개구장애, 불유합, 짝짝이, 볼처짐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두피절개를 통해서만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피절개를 통해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피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 광대뼈를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대칭 광대교정 및 재수술의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고, 절골한 광대뼈를 상방으로 이동한 후 단단하고 정확하게 고정시키기 때문에 광대뼈의 하방처짐 현상이 없고 볼처짐 위험도 낮다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광대뼈 축소술' 하면 양쪽 광대뼈를 절단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골하여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는 것이다. 이처럼 광대뼈 축소술은 환자의 위험 부담이 큰 수술인 만큼 병원의 유명세나 저렴한 수술비용에 현혹되기보다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안면윤곽수술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LX, 본사 내 청년 창업 '카페120' 오픈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본사 1층 로비에 청년 창업 카페인 '카페 120'이 문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카페 120' 가게 이름은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LX 본사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인 '기지로 120'에서 따왔다. 이 카페는 경력 단절 여성 1명과 청년창업을 꿈꿨던 청년 1명 등 두 명의 여성 바리스타가 운영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에 김선욱 前대 총장 선임
포스코청암재단이 20일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김선욱 존 이화여대 총장(현 재단이사)을 제 5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포스코청암재단 김선욱 이사장(첫발째줄 왼쪽 네번째)이 2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국내 대학원으로 유학 온 아시아지역 우수 학생 2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후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청암재단



KB국민은행, 디지털 혁신 'KB 플레이 데이'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교직원 공제회 관 및 KB손해보험의 '인재니움 수원' 연수원에서 57명의 전 경영진이 참여한 'KB 플레이 데이(PLAY Day)'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영진 프로그램은 강의실을 떠나 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6개 혁신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디지털 기업의 조직문화와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은행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커톤 방식으로 토론했다. /KB국민은행



20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8회 사랑의 김치 페어(Fair)'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첫번째줄 왼쪽 일곱번째부터),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금융투자업계 CEO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계, 사랑의 김치 3.5만kg 소외이웃에 전달

'제8회 사랑의 김치 페어' 김장행사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증권·자산운용·부동산신탁 및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제8회 사랑의 김치 페어(Fair)' 김장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를 비롯해 63개 금융투자회사 및 증권유관기관의 최고경영

자(CEO) 40명과 직원 7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정재숙 문화재청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우리 민족의 뛰어난 식문화와 선조들의 지혜가 함축된 김장은 함께 만들고 나누는 것이 핵심인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든 따뜻한 사회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

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사랑의 김치 Fair는 매년 참여인원과 기부김장의 양이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총 3만4500kg의 김치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및 금융투자회사가 후원하는 복지시설 100여 곳에 전달됐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coul.co.kr



정우성, 이정재 /발렌타인

발렌타인 브랜드모델 이정재·정우성 선정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이 작년에 이어 배우 이정재·정우성을 브랜드 모델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오랫동안 정상에 있는 두 배우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브랜드의 모델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백인용 기자

인사

- ◆ 한국석유관리원 ◇ 전보 △ 경영기획처장 이경민 △ 경영관리처장 이경흠 △ 사업관리처장 도재정 △ 석유기술연구소장 하중환 △ 수도권북부본부장 정길형 △ 대전세종충남본부장 김만식 △ 영남본부장 정충섭 △ 강원본부장 오영권 △ 충북본부 감사팀장 윤기선 △ 경영관리처 회계관리팀장 이현철 ◇ 승진 △ 감사실장 황인하 △ 석유기술연구소 석유대체연료팀장 이민호 △ 석유기술연구소 종합시험센터장 강형규
- ◆ 데일리스포츠한국 △ 전무이사 지재원

부음

- ▲ 주수용 씨 별세, 김정미(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 씨 시모상 = 19일, 실낙원 인천 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30분.

032-548-1009.

- ▲ 김영복님 별세, 우승현(동양건설산업 대표이사)·승련·승란씨 모친상 = 20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2일 오전 8시, 경기도 남양주시 천주교 소화묘원. 031-961-9400.
- ▲ 박해선씨 별세, 남성하(전 마산 가포교 교장)·남동규(LB프라이빗에쿼티 대표)·남성숙·남성순·남성희씨 모친상 = 19일, 대구 수성요양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53-784-2000.
- ▲ 신현길씨 별세, 김진국(대신증권 차장)·용국(주택관리공단 과장)씨 모친상, 육상현(사업)·김주환(YTN 부국장)씨 빙모상 =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2일 오전 3시. 02-2227-7572.
- ▲ 김경숙씨 별세, 정웅(예일학원장)·성숙(TBC 부장)씨 모친상, 광길중(재미사업)씨 장모상 = 20일 오전 2시, 동산병원 장례식장 특101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10-5061-7748.



롯데, 거제시에 'mom 편한 곱다락' 20호점 오픈
롯데는 지난 19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성지원'에 'mom편한 곱다락' 20호점을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는 2013년부터 사회공헌 브랜드 'mom편한'을 통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고 마음 편한 세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성지원 이미숙 원장(왼쪽부터), 롯데지주 CSV팀 이종현 전무, 구세군자선비분부 박창희 사무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하이트진로, 김장김치 나눔행사 진행
하이트진로가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밤을 지원한다. 하이트진로는 20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겨울철 맛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소방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해 전북소방본부가 함께해 더욱 특별한 나눔 봉사자 됐다. /하이트진로

“식재료 구입과 동시에 식사 즐긴다”

밀레니얼 세대 맞춤형 트렌드 ‘그로서란트’ 매장 인기

(그로서리+레스토랑이 결합된 신조어)

롯데마트 총 4개의 스테이션 운영
신세계 프리미엄 ‘PK마켓’ 중심
편의성·가성비 중시한 소비층 공략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음식 문화 공간인 ‘그로서란트’가 주목 받고 있다. 그로서란트란 식재료를 뜻하는 그로서리(Grocery)와 음식을 먹는 레스토랑(Restaurant)이 결합된 신조어로 고기나 해산물 등의 식재료를 구입한 매장에서 바로 요리한 음식을 레스토랑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로서란트는 고객이 선택한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 즉시 매장에서 바로 조리해 제공해 주므로 매장에서 장보기와 식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식재료 값에 소정의 조리비만 내면 되기 때문에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한다. 이에 편의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크게 각광받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그로서란트 매장을 확대하며 소비의 주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테이크 스테이션.



/롯데마트 PK마켓.

/신세계

롯데마트는 ‘스테이크’, ‘시푸드’, ‘주스’, ‘샐러드’ 등 총 4개의 ‘그로서란트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재료 손질이 어려운 신선식품이나 설거지 등 뒤처리 부담이 큰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어 요리를 즐기기에 편리해 밀레니얼 세대뿐 아니라 주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롯데마트 서초점 지하에 위치한 그로서란트 코너는 지난해 7월 오픈 이후 1년 동안 일 평균 기준 8300여명, 한 달 기준 25만여명의 고객이 방문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스테이크 스테이션은 2000원의 조리

비용만 내면 구입한 스테이크용 소고기를 채소와 소스까지 곁들여 요리해 준다. 시푸드 스테이션 역시 랍스터, 킹크랩 등의 해산물을 수조에서 바로 골라 신선한 요리로 맛볼 수 있다. 조리된 음식은 매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으며 집으로 포장해 갈 수도 있다.

신세계는 프리미엄 마켓 전략으로 스타필드에 육류와 해산물 그로서란트 매장인 ‘PK마켓’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테이크 전문매장인 ‘부채스테이블’과 랍스터나 조개, 장어 등 해산물 전문 매장인 ‘라이브 랍스터 바’로 구분해

운영한다. 냉장육 스테이크나 랍스터와 같이 고가의 레스토랑 요리를 가격과 조리에 대한 부담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장에서 쇼핑과 함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남다른 감각으로 선별된 우수한 제철 식재료와 쉽게 구할 수 없는 다양한 채소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다.

‘PK마켓’은 다른 그로서란트와 달리 오리엔탈 요리와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바(Bar)가 있어 주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구입한 식재료로 요리한 음식과 함

께 캔맥주와 생맥주, 와인 등 요리에 맞는 다양한 주류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젊은 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스테이크 전문 그로서란트 매장도 인기가 높다. 먹고 싶은 부위의 소고기를 직접 고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급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어 젊은 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앵거스박 라운지’는 고급 품종인 ‘프리미엄 블랙앵거스’ 소고기를 스테이크로 바로 요리해 주는 프리미엄 그로서란트 매장이다. 등심, 부채살과 같은 기본적인 스테이크 부위뿐만 아니라 토시살, 안창살, 꽃갈비살과 같은 고급 부위도 부담 없는 가격에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의 주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효율과 편의성을 추구하면서도 가성비를 고려하는 소비 특성을 보인다”라며 “그로서란트 매장은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 성향인 편의성과 가성비를 모두 만족시켜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비비고’ 앞세워 죽 시장 공략

HMR 기술 집약... 품질·편의 극대화
소고기죽·전복죽 등 신제품 4종 출시

CJ제일제당이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죽카테고리를 일상식으로 본격 육성한다.

CJ제일제당은 가정간편식(HMR) 시장에서 품질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죽 제품으로 상품죽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상온 HMR R&D/제조 기술 경쟁력과 마케팅 역량을 동원해 상품죽 시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모두 4종의 ‘비비고 죽’ 신제품을 선보였다. 기존 시장의 죽 제품들이 아플 때 먹는 밥대용식으로 인식됐다면 ‘비비고 죽’은 일상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한끼를 구현했다. 이전 제품들과 달리 신선한 쌀알의 살아있는 식감과 정성 들어 끓여낸 깊은



맛의 육수, 풍부한 건더기로 차별화했다. 별도의 조미 없이 ‘제대로 만들어 그대로 맛있는 죽’으로 만들었다. 새롭게 선보인 ‘비비고 죽’은 ‘소고기죽’, ‘전복죽’, ‘버섯야채죽’, ‘단호박죽’ 등이다.

CJ제일제당은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죽과 달리 ‘비비고 죽’을 집에서 더 맛있고,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R&D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상품밥 대명사인 ‘햇반’을 제조하며 축적한 밥 짓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죽으로 완성된 후에도 쌀알이 뭉개지지 않고 살아있는 식감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저온 보관한 100% 국내산 쌀을 자가도정 한 후 맷쌀과 부드러운 찹쌀을 최적의 배합비로 섞어 만들었다.

육수와 건더기는 ‘비비고 국물요리’와 마찬가지로 끓인 후 원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어 가정 또는 죽전문점에서 먹던 깊은 맛을 재현했다. ‘소고기죽’은 사골을 우려내 볶은 소고기와 표고버섯을 넣었으며, ‘전복죽’은 전복과 버섯에 양지육수를 더했다. ‘버섯야채죽’은 새송이버섯과 갖은 채소를 넣었고, ‘단호박죽’은 단호박 덩어리와 통단팥을 넣어 달달하고 깊은 맛을 만들어 냈다.

/박인용 기자

신세계푸드, 푸드메틱 시장에 도전장

스무디킹-메디힐, 마스크팩 선보여

신세계푸드가 푸드메틱(Food-metic) 시장에 진출한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스무디킹(SMOOTHIEKING)’이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MEDIHEAL)’과 협업을 통해 마스크팩 3종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푸드메틱은 식품(Food)과 화장품(Cosmetic)이 합쳐진 말로 식품업계와 화장품업계간 협업으로 탄생된 제품을 말한다.

이번 협업은 건강하고 활기찬 음료 브랜드인 스무디킹과 프리미엄 마스크팩 브랜드인 메디힐이 20~30대 젊은 여성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시너지를 통해 두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스무디킹은 이번 마스크팩 출시를 통해 주력 분야인 음료를 넘어 비식품 분야로 브랜드를 확장하게 됐다.

스무디킹과 메디힐의 협업으로 출시된 마스크팩은 스무디킹의 대표 스무디의 향과 성분을 활용한 ‘스트로베리 익스트림 마스크’, ‘망고 페스티벌 마스크’, ‘피



20일 서울 중구 스무디킹 을지로입구점에서 모델들이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과 협업을 통해 출시한 마스크팩 3종을 소개하고 있다.

치 슬라이스 플러스 마스크’ 등 3종이다. 각 제품마다 스무디의 원재료인 딸기, 망고, 복숭아의 추출물을 함유해 달콤하고 상큼한 향을 머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히알루론산, 티트리추출물 등 각종 영양 성분을 넣어 생기 있는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준다.

스무디킹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서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퀘이커オート밀, 5개월만에 200만개 팔려

Advertorial Corner

롯데제과 부담없는 식사대용 핫시리얼

계절이 바뀌면 우리의 몸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몸살을 앓는다고 한다. 이럴 때 필수품인 식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부담없는 먹거리, 몸에 좋은 먹거리를 찾아 먹는 것, 가을을 즐기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가을 먹거리로 마땅한 음식 중에 하나가オート밀이다.オート밀은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다. 원활한 배변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음식이기도 하다. 롯데제과의 퀘이커オート밀은 이 계절에 즐

기기 좋은 건강식이다.

퀘이커는 1인가구와 간편식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에게 안심맞춤인 제품이다. 특히 서늘한 가을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대용 핫시리얼 간식이다. 이 제품은 차가운 우유에 타서 먹는 콜드시리얼과는 달리 따뜻한 우유나 두유, 물에 데워서 먹으면 좋은 제품이다. 식감이 부드러운 연죽을 연상케 해줄 정도여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달지 않고 담백하며, 개운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롯데제과는 도입부터オート밀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고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층을 넓혀 나가고 있다.



퀘이커.

/롯데제과

이에 ‘퀘이커’는 출시 5개월 만인 9월 말까지 약 200만개가 팔려 나갔다. 퀘이커의 인기는 이 제품을 시식해 본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번지고 있다. 특히 입소문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지난 6년간 연평균 12.6%의 매출 신장을 기록할 정도로 퀘이커 핫시리얼의 인기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핫시리얼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인용 기자

유통 단신

CU
30초 렌지업 디저트 2종

CU가 동절기를 맞아 30초 렌지업으로 갖 구운 듯 따뜻하게 즐기는 디저트 2종(초코풍당 쇼콜라, 크림풍당 카스텔라)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초코풍당 쇼콜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인 풍당쇼콜라를 초콜릿으로 한 번 더 코팅해 달콤함을 극대화한 상품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농심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출시

농심은 오는 26일 듀럼밀로 만든 스파게티면에 크림 소스를 더한 ‘스파게티 까르보나라’를 20일 시장에 내놨다.

스파게티 까르보나라는 이탈리아 정통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맛을 그대로 살린 제품이다. ‘미트크림소스’와 ‘까르보나라소스’를 넣어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스파게티 소스를 완성했다.



/박인용 기자

제약·바이오기업 잇단 '희소식'

올해만 4.7兆 기술수출 '쾌거'

인트론바이오·코오롱생명과학 등 R&D투자 임상적 성과 도출 주목 이달 기술수출 금액만 3兆 육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달 기술수출 금액만 2조8770억원, 올해 성사된 기술이전 규모는 4조7000억원이 넘는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간 연구 개발에 집중해 온 제약사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일 인트론바이오는 총 계약금액 6억 6750만달러(약 7526억원) 규모의 슈퍼박테리아 바이오신약 'SAL200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상대는 파마반트(PHARMAVANT)이고 보증계약 상대는 로이반트 사이언스(ROIVANT SCIENCES)다. 인트론바이오는 매출액의 10% 초반대를 경상기술료로 별도로 수령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현재 해당 기술을 이용해 임상 2상과 임상 1상 시험을 한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코오롱생명과학은 글로벌제약사인 먼디파마와 세계최초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일본 기술이전(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총 금액 6677억원(약 5억 9160만 달러)으로 반환 의무없는 계약금 300억원(약 2665만 달러)과 단계별 판매 마일스톤 약 6377억원(약 5억 6500만 달러)이 지급된다. 국산 의약품의 단일국가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일 유한양행은 안센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의 기술수출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은 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만 달러를 지급받고, 개발 및 상업화까지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최대 12억500만 달러를 받아 총 수출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7월에도 미국 스팅인 바이오파마에 퇴행성디스크질환 신약물질 'YH14618'를 총 2억1815만달러(2442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한 바 있다.

전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기술수출한 성과도 있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8월 레오파마와 전임상 단계에 있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후보물질 'JW1601'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4억200만달러, 약 4500억원 수준이다. JW중외제약은 제품 출시 이후에는 레오파마의 매출에 따라 최대 두자릿수 비율의 로열티도 받게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전 단계인, 전임상 결과만으로 기술수출이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혁신신약 가능성이 높음을 방증한다. 특히 선진 기술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와 손을 잡으면서 개발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 실패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KB증권 이태영 연구원은 "그간 연구 개발에 집중해 온 여러 제약사들의 투자 성과 도출 되고 있다"며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간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유의미한 임상적 성과 도출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프랜차이즈 매장은 똑같다고?

"지역 특색 담으니 '명소' 됐네~"

프랜차이즈업체가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와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색을 담은 매장을 내세우며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 특색을 담은 매장들은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위치적인 특성이 반영돼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 명소'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KFC '제주 중문점'

KFC는 지난 10월 '제주 중문점'에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특별한 동상을 설치해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대표마스코트인 '커널샌더스 상'에 제주도의 독자적인 해녀 문화를 반영해, 하얀 정장이 아닌 해녀복을 입은 '커널샌더스 상'을 설치한 것이다. 이 '커널샌더스 상'은 해녀복과 함께 한손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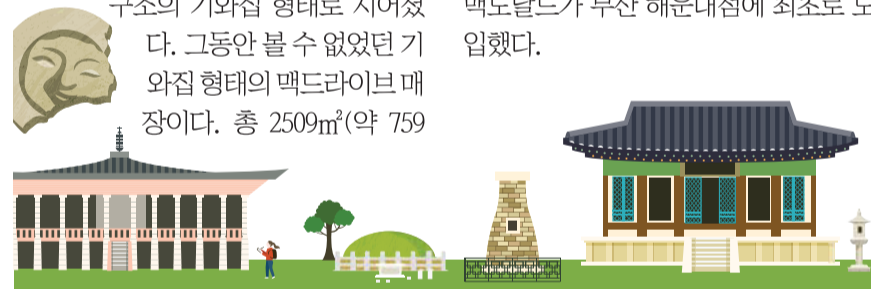
해산물 대신 치킨이 가득 든 그릇을, 다른 한 손에는 치킨 한 조각을 들고 있어 KFC와 제주도 특색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매장 2층에는 하얀 자켓을 입은 본래의 커널샌더스 상 외에 붉은 자켓, 파른 자켓을 입고 있는 커널샌더스 상을 추가로 세워, '제주 중문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말 그대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맥도날드 '경주용강 DT점'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할 만큼, 신라 천년의 역사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경주에 위치한 맥도날드 역시 남다른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맥도날드는 경주에 한국 최초의 기와집 맥드라이브(McDrive) 매장인 '경주용강DT점'을 운영 중이다. 경주용강DT점은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 한옥 구조의 기와집 형태로 지어졌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기와집 형태의 맥드라이브 매장이다. 총 2509㎡(약 759



평) 규모의 대지에 1층 건물로, 113좌석을 갖추고 있다. 맥드라이브는 차를 탄 채 제품을 주문하고 결제, 픽업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으로 지난 1992년 맥도날드가 부산 해운대점에 최초로 도입했다.

스타벅스 '문경새재점'

문경새재에서는 유독 한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스타벅스 매장을 만나볼 수 있다. 문경새재는 선비들의 과거길로 유명한 곳으로, 옛길을 따라 펼쳐진 자연경관과 함께 복원된 주막 및 다양한 유적으로 역사적, 민속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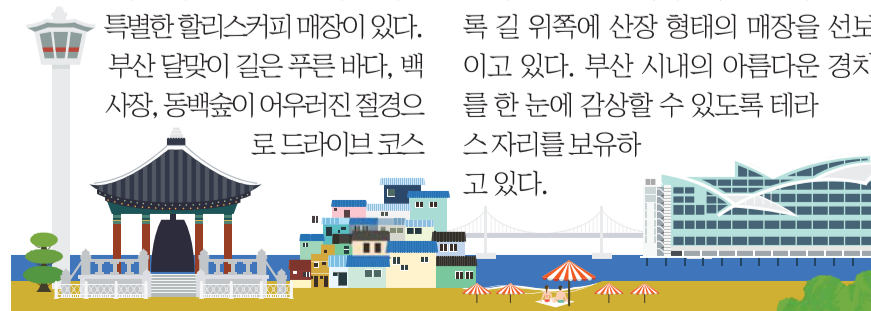
스타벅스는 문경새재의 이러한 역사적 특성을 반영해 가장 한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매장을 선보였다. 2층에는 국내 최초로 좌식 매장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할리스커피 '부산 달맞이점'

부산의 명소인 달맞이 길에는 특별한 할리스커피 매장이 있다. 부산 달맞이 길은 푸른 바다, 백사장, 동백숲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드라이브 코스



로도 유명한 부산 팔경 중 하나다. 할리스커피 '부산 달맞이점'은 이러한 부산 팔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길 위쪽에 산장 형태의 매장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 시내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테라스 자리를 보유하고 있다.

초음파로 식도정맥류 출혈 치료 예측한다

김휘영 이대목동병원 교수 공동연구

출혈 위험이 높은 식도정맥류(식도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를 가진 간경변증 환자에서 출혈 예방을 위한 베타차단제 투여 시 초음파 기법을 이용한 치료 반응 예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도정맥류는 간문맥(내장 및 비장에서 온 혈액이 간으로 모여드는 혈관) 압력이 상승해 혈액이 식도로 몰려 식도 정맥이 확장되는 현상인데 출혈이 발생하면 피를 토하거나 흑색변을 배설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이 되는 문맥압을 낮추기

위해 베타차단제를 투여할 수 있다.

김휘영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서울의대 김원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간경변증 환자에서 식도정맥류 출혈 예방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약제인 베타차단제 치료 후 혈액학적 예측 지표를 조사한 결과 초음파로 측정된 비장강직도가 예측 지표로서 유의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김 교수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해 출혈 위험이 높은 식도정맥류가 관찰되는 106명의 환자에서 베타차단제 치료 전과 후의 간경변증, 간강직도와 비장강직도를 측정했다. 이후 관찰된 측정값



을 이용하여 혈액학적 반응에 대한 예측모형을 도출하고 63명의 독립적인 코호트에서 해당모형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혈액학적 반응은 도출 코호트에서 59명(55.7%), 검증 코호트에서는 33명(52.4%)에서 관찰되었고, 다변량분석에서 치료 전후 비장강직도의 변화가 혈액학적 반응의 유일한 예측 지표였으며, 비장강직도 변화를 이용하여 도출한 예측모형은 양 코호트 공히 우수한 예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동래 할매파전·철원막국수·공원당... '백년가게' 18곳 추가선정

부산 동래할매파전, 강원도 철원의 철원막국수, 충북 청주공원당, 충남 천안 큰댁, 울산 안양불고기 등이 '백년가게'에 추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과 이달에 제3차·4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모두 18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위원회에선 서류와 현장 평가를 통한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여부, 평판도 등을 고려해 음식점 15개, 도·소매업 3개 업체를 뽑았다. 지역별로 충북 6개, 충남 3개, 대전·강원 2개, 부산·경북·경남·광주·울산이 각 1개이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지속 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공모델을 발굴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모두 48개 업체가 뽑혔다.

이번에 백년가게로 선정된 동래할매파전은 서민 음식 '파전'을 '동래부사가 임금님에 진상했다'는 스토리로 4대째 지속한 명품 파전집이다. 공원당은 차별화된 비법과 정성이

담긴 판메밀, 온메밀 그리고 다양한 돈가스도 청주지역 달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나드리는 중독성이 강한 다양한 쫄면 양념을 개발, 상품화에 흡소핑과 대형마트까지 판로를 넓혀나가는 쫄면 업계의 전국 강자다.

중기부는 뽑힌 업체에 백년가게 확인서와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들은 백년가게 확인서를 갖고 가까운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100% 보증과 보증료율(0.8% 고정)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선 정책 자금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와 전국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온라인(100year@semas.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백년가게 3·4차 선정 결과>

상호명	위치	업력
동래할매파전	부산 동래구	40
철원막국수	강원 철원군	44
봉래식당	경남 창원시	52
공원당	충북 청주시	41
대동관	충북 청주시	42
재건갈비	충북 청주시	37
제천식육점	충북 제천시	39

상호명	위치	업력
나드리	경북 영주시	32
민들레	광주 서구	33
동승춘	강원 삼척시	32
신화당분식	충북 청주시	41
남주동해장국	충북 청주시	32
큰댁	충남 천안시	36
진주회관분관	충남 천안시	37
만덕동나무집식당	충남 태안군	30
안양불고기	울산 안양읍	33
한도안전상사	대전 대덕구	32
동신위생도기	대전 대덕구	52

/자료=중소벤처기업부

GS칼텍스, 미얀마 저소득층에 ‘쿡스토브’ 지원

저탄소 취사도구 5만대로 환경 보전

GS칼텍스는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얀마 저소득층 가구에 ‘쿡스토브(Cook Stove)’ 5만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쿡스토브는 미얀마 저소득층 가구에서 사용하는 화로와 비교해 연료비용은 최대 66%, 조리시간은 최대 50%를 감축할 수 있는 저탄소 고효율 취사도구다. GS칼텍스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가사비용 절감과 가사노동시간 단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쿡스토브 지원사업을 통해 산림 보존과 호흡기 질환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30억 명 정도가 나무나 숲 등을 태워 요리하고 있으며 해마다 400만 명 정도가 가정 내 공기오염으로 인해 숨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GS칼텍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년 5만톤



GS칼텍스 미얀마 쿡스토브 지원사업 파트너인 에코아이 관계자가 쿡스토브 사용법을 미얀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GS칼텍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 감축 노력은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은 “쿡스토브 지원

사업을 통해 미얀마 국민 건강증진 및 환경 보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은 물론, 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걱정되는 ‘反기업정서’



기자 수첩

김재웅
(산업부)

조선 근대화는 한일합방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로도 이용됐다.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하고 부패한 조선 왕조를 몰아내야 한다는 논리다.

21세기 한반도에도 새로운 근대화론이 싹을 틔우고 있다. 재벌을 몰아내자는 주장, 이른바 ‘반재벌주의’다.

당초 반재벌 정서는 대기업 경영을 혁신하고 사회 분배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반재벌주의는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변해버렸다. 무조건 재벌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론을 흔들고 있다.

정말 재벌을 몰아내면 공정한 사회가 올 수 있을까. 현실을 살펴보면 답은 간단하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 비중은 30%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52.56%로 절반을 넘어섰고, 현대차도 50%에 가깝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순식간에 외국 기업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계 자본 식민화 작업은 이미 가속화한 상태다. ‘행동주의’로 미화된 헤지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탄 사태 이후 최근에는 엘리엇이 주주 이익을 명분으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을 방해하며 경영권 간섭을 본격화했다.

헤지펀드는 오직 단기 이익에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경영권을 잡으면 대규모 구조조정부터 벌인다. 사회적 책임에 예민한 재벌 경영과는 다르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은 그래서 중요하다.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경영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재벌이 자발적인 개혁 움직임도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최근 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이어지는데도 정당하게 경영권을 상속받았다.

재벌이 막다고 외국계 자본을 환영해서는 안된다. 조선왕조를 대신한 일본제국은 민중을 더 가혹하게 유린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외국계 기업이 된다면 어떨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juk@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아동학대 예방·근절 위해 앞장

현대차그룹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예방 및 근절을 위해 3년간 총 15억원의 지원금을 약속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년간 진행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출동차량 지원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3년 ‘학대피해아동 안전쉼터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현장출동차량인 ‘아이케어카’ 레이 63대, 코나 7대, 투싼 2대, 스타렉스 6대 등 총 78대와 기존 출동차



(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현대차그룹 정진행 사장이 아동학대 예방 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량 152대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에 방사업업을 이어왔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11월 21일 (음 10월 14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조인도 사람을 바가며 들어야 한다. 60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 온다. 72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휴식. 84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니 마음을 편하게.

소 49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61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 거래가 순조롭다. 73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적으나 성과도 적다. 85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호랑이 50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6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서 살아야 복이 온다. 74년생 상대에게 가장 큰 복수는 완벽하게 있어 주는 것. 86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즐겁다.

토끼 51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63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무사히 달성한다. 75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니 보람이 있다. 87년생 내키지 않아 웃어야 하니 서글픈 하루.

말 52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아랑을 베풀자. 64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7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도장은 내일 찍어라. 88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뱀 53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65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77년생 다정도 병이니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좋지 않다. 89년생 돌아갈 수 없어서 어제가 더 그리다.

말 54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매사에 최선. 66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78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격. 90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을.

양 55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6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79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91년생 원하는 대로 풀리니 교만해질까 우려.

원숭이 56년생 이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는 날. 68년생 남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 80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귀인이다. 92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벅찬 하루가 될 수 있다.

닭 57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살 수 있다. 69년생 아랫사람과의 불화가 의심되니 주의. 81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9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롭다.

개 58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가 많으나 실리는 별로 없다. 70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하는 것. 82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하라. 94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좌불안석이고 불편.

돼지 59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71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83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간직하자. 95년생 확실한 거절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6			1		
	5	3						4
8			4		3		6	5
		6		1		5		2
			5		6			
5		7		3		9		
4	6		2		5			3
	3					6	2	
		9			1	4		

			2	3	5			6	
				4				3 1 5	
	5								
3	6	5			4		7	8	
						3	7		4
	4					6			
	1	4						9	
	2				6		5	4	7
				8	4				

스도쿠 정답

4	5	8	1	9	6	3	7	2
1	2	9	8	7	5	4	6	3
8	6	5	2	3	1	9	7	4
9	1	6	7	4	8	2	5	3
7	4	9	2	5	8	6	1	3
2	8	5	6	1	4	9	7	3
5	9	1	4	6	7	2	8	3
6	7	2	4	8	1	5	9	3
8	4	1	3	9	7	4	6	5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四季 인생길의 목표를 정하라

인간으로 태어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일일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생각해본다. 왜냐하면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세상사를 들여다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의 의미에 크나큰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보다 보면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불상사는 물론 인간들의 분노나 화로 인해 일어나는 끔찍한 비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들도 인간들의 편리추구를 위해 지구환경을 훼손한 결과임이 뚜렷하다.

인명 살 상등 잔혹한 범죄 함께 살아가는 공동 가치관의 파괴 갈수록 분노조절 장애라든가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신은 물론 남들도 끔찍한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말싸움으로 칼부림을 하여 아라바이트생의 생명을 잃게 했다. 혼수문제로 여자 친구의 목숨을 해친 일 등 무려 일주일 사이에 아주 가까운 사의 사람을 살상하고 그 가족들까지 살상을 하는 끔찍한 비극이 4건이나 일어난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화를 제어할 수는 없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의 처음은 모두가 탐욕과 화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은 아닐까.

왜 석가모니부처님이 탐진치를 삼독(三毒)이라 하셨는지 알 수가 있다. 사람들은 항상 나의 분노에 나의 화를 붙잡고 있다. 그 뜨거운 불덩이를 쥐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칼로,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다. 주먹을 놓을 줄은 모르고 분노만 토해낼 뿐 누구하나도 인간으로서의 원래 바른 청정한 마음을 위한 노력들은 없는 것이다. 메스컴의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보도들은 자신들의 특종을 위해 앞뒤의 영향은 살피지도 않은듯하다. 그저 파헤치고 알리기에 바쁘며 심지어는 과장까지 하여 두려움을 더 조장하는 경우까지 본다. 무신론자보다 종교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임에도 이런 시대에 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자괴감에 빠질만한 대목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21-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호

‘연말 호캉스’, 미리 예약하면 할인혜택에 선물은 ‘덤’

호텔업계 얼리버드 프로모션
사전예약 패키지 제품 붐물
케이크·와인·조식 등 제공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호텔업계가 겨울 시즌을 맞아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미리 예약하면 할인 혜택이나 추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들은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본격 선보이며 연말·연초를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패키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만큼 겨울 ‘호캉스’(호텔+바캉스)를 계획한 고객들의 호응도 높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서울 코엑스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시그니처 윈터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사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페어리 윈더랜드’ 패키지.



켄싱턴호텔 여의도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윈터컨티넨탈’ 패키지.

전 결제 시 선착순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얼리버드 프로모션은 11~12월 숙박에 한해 진행된다. 25일까지 사전 예약하면 20% 할인이 적용되며, 26일부터 30일까지 예약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그니처 윈터 패키지는 서울 파르나스의 ‘윈터컨티넨탈 패키지’와 서울 코엑스의 ‘퍼더모어 패키지’로 구성됐다. 모든 윈터 패키지 이용 고객은 호텔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사우나 제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윈터컨티넨탈 패키지’는 호텔만의 시그니처 서비스를 경험하며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콘셉트다. 호텔 로비라운지에서 DIY 시그니처 핫초코(커피나

티로 대체 가능) 2잔을 즐길 수 있으며, 호텔 시그니처 담요가 선물로 제공된다. 또 그랜드 키친에서의 2인 조식과 무료 베개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퍼더모어 패키지’는 환경을 고려하는 ‘비건 패션’ 트렌드를 반영해 에코 퍼가방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를 즐길 수 있는 브레서리 2인 조식 뷔페가 혜택에 포함됐다.

켄싱턴호텔 여의도는 ‘크리스마스 무드 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예약하는 고객에게 1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이번 패키지는 내년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패키지 고객에게는 프랑스 크리스마스 전통 케이크로 알려진 ‘부슈 드 노엘(buche de noel)’을 특별 제작해 제공한다. 또한, 객실 내 파티를 즐길 수 있

도록 케이크와 어울리는 와인을 함께 제공한다. 이그제큐티브 객실 1박과 라운지 혜택 2인(조식, 애프터눈 티타임, 해피아워) 등이 패키지에 포함됐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겨울 패키지의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경우 10% 할인과 오후 3시 체크아웃이 제공된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이 내년 2월 28일까지 선보이는 겨울 패키지는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작품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한다. 이번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과 노보텔 강남에서 단독 제작한 어린왕자 아트랩을 포함한 다양한 어린왕자 웰컴 기프트, 호텔 레스토랑 20% 할인, 체크아웃 시 제공되는 서프라이즈 선물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동화 ‘엘리스’를 콘셉트로 한 ‘페어리 윈더랜드’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3일까지 예약하고, 해당 기간 내에 투숙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예약 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페어리 윈더랜드’ 패키지에는 동화에 등장하는 시계, 토끼, 열쇠 등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해 만든 엘리스 캐릭터 쿠기와 함께 티백 박스를 제공한다. 웨스틴 애프터눈 티 트레이와 엘리스 티 파티를 즐길 수 있다. 또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이용 가능한 고메 윈더랜드 바우처를 제공한다.

켄싱턴 제주 호텔은 패키지 하나로 호텔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내년 31일까지 선보인다. 얼리 윈터 프로모션으로 사전 예약할 경우, 1박당 최대 15% 할인 혜택과 10만 원 상당의 디럭스 풀사이드 뷰 객실 업그레이드가 제공된다.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는 패키지 하나로 추가 비용 없이 다이닝, 파티, 액티비티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식, 중식, 석식 등 3회의 올데이 다이닝을 제공하며, 뷔페는 물론이고 룸서비스와 브런치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 ‘라이브 콘서트 언더 뷰’ 등 각종 파티와 호텔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빈폴스포츠 “트와이스가 입은 다운자켓 할인”

25일까지 ‘트와이스 워크’ 진행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스포츠(Be anpole Sport)’가 오는 25일까지 겨울 다운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트와이스 워크(Twice Weeks)’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빈폴스포츠는 지난 8월 론칭 이후 보내 온 고객들의 지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특별 할인 주간인 ‘트와이스 워크’를 준비했다. 빈폴스포츠의 ‘트와이스 워크’는 걸그룹 트와이스가 착용해 화제가 된 ‘트와이스 비벤치 다운’을 포함해 ‘경량다운 패딩 점퍼’, 트렌디한 실루엣의 ‘쳐비 푸퍼 다운(Chubby Puffer Down)’, ‘프리



미엄 다운(Premium Down)’ 등 올가을겨울 시즌 다운 전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할인 행사다.

또, 빈폴스포츠는 ‘트와이스 워크’ 기간 동안 이번 가을겨울 시즌 다운 상품을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빈폴스포츠 스마트 폰 터치 니트 글로브’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김민서 기자

“레이스 활약, 불스원 ‘G-테크’가 한 몫”

인터뷰
류시원 레이서 겸 팀106 감독

고속 주행에 적합해 만족스러워
1년간 사용... 내년에도 함께 할 것

레이서로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류시원 ‘팀106’ 감독 겸 선수가 올해 레이싱 소감과 함께 ‘자동차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오일 ‘불스원 G-테크’의 품질에 대해 입을 열었다.

류시원 감독은 최근 레디컬 컵 아시아에 출전해 9라운드 3위, 10라운드 우승을 하며 연속으로 수상대에 올랐다. 슈퍼레이스 캐달락 6000 클래스에서 3위에 오른 것 까지 포함하면 올해 트로피 3개를 거머쥔 셈이다.

류시원 감독은 “올해는 팀106에서 처음으로 원카 레이싱 체제로 운영했다”며 “혼자 시합을 하며 외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드라이버, 팀, 차량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반기에는 운이 좀 따르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전에서 3위로 마무리하면서 올해 레이스는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감독은 지난 1996년 연예인 최초로 카레이싱 자격증을 획득해 이듬해 1997년 프로데뷔를 했다. 2009년부터 ‘팀106’이라는 레이싱 팀을 만들어 감독 겸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팀106은 류감독의 생년월일인 10월6일을 의미한다.

그는 “팀106을 만

든 지 어느덧 10년이 됐다. 대기업의 후원이 없는 개인 팀이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팀이 됐다”고 전했다.

배우 류시원이 아닌 카레이서이자 레이싱 팀 감독 류시원으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연예인 카레이서라는 타이틀이 10년 넘게 있었지만 팀을 창단한 이후부터는 저를 카레이서로 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며 “레이싱을 할 때만큼은 연예인이 아닌 카레이서로서 시합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류감독이 레이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자동차의 혈액’ 엔진오일도 그 중 하나다.

류감독은 “속도를 겨루는 레이싱카는 극한으로 달리기 때문에 오일의 점도가 중요하다”며 “국내산 오일은 레이싱카에 사용하기 쉽지 않은데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불스원 G-테크 오일은 기존 외국 오일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다”고 했다.

불스원은 지난 류시원 감독의 ‘팀106’과 프리미엄 합성 엔진오일 G-테크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G-테크는 고속주행에 최적화된

‘0W-40 하이 퍼포먼스’, 연비 향상 효과를 극대화한 ‘5W-20 퓨얼 퍼포먼스’, 도심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5W-30 멀티 퍼포먼스’ 3종으로 국내 도로환경, 다양한 차종 특성 등에 따라 특화된 성능을 발휘하는 게 특징이다.

팀 106은 협약 체결 이후 G-테크를 지원받아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스톡카 레이싱인 슈퍼 6000 클래스에 참가했다.

류감독은 “내년에도 함께 하게 된다면 G-테크를 사용할 생각”이라며 “레이싱카가 고속주행을 견디고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류감독은 카트레이싱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류감독은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가 더 대중화되고 사랑 받게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964@

‘K-콘텐츠 힘’ 대만 관광객 100만명 돌파

관광공사 사상 최대 기록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2일에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 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이라고 20일 밝혔다.

10년 전인 2008년 불과 32만 명 수준이었던 대만 방문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2012년 50만 명을 돌파했다. 메르스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고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83만 명, 2017년에는 92.5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며 중국, 일본에 이어 처음으로 TOP3에 진입,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연말에는 1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오래전부터 일본 문화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드라마와 K-Pop이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아 아시아 한류의 발원지가 됐다. 최근에는 대중문화 콘텐츠만이 아

닌 한식, 패션, 한국어 등으로 관심의 폭이 확대되며 방한 관광으로까지 연결됐다. 아울러 2015년 한-대만 항공 협정 체결을 통한 항공편의 대폭 증가, 지방공항의 LCC 취항 증가, 크루즈 노선의 확대 등 다양한 교통편이 확대됐다.

이에 공사는 유관기관, 업계와 공동으로 2030 여성 세대 대상 쇼핑, 뷰티 등 트렌디한 콘텐츠의 홍보 강화 및 상품 개발, 한류콘텐츠와 스포츠관광 연계 방한 상품 판촉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사는 1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오는 22일에 입국하는 대만관광객 대상 환영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3~26일 열리는 대만 최대 여행박람회 ‘2018 타이베이국제여전(ITF)’에 대규모 한국관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다.

/김민서 기자



사진/불스원



최선을 다해 이뤄갑니다 IBK동반자금융

IBK기업은행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금융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좋아, 또 해냈어!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IBK동반자컨설팅 제공



#IBK아시아금융벨트 구축



#중소기업 근로자 어린이 집 오픈



#i-ONE JOB 일자리 플랫폼 운영

광주 軍 공항 이전 ‘무안’ 의회서 반대... 후보지 난항

무안군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연말까지 예비후보지 선정 무리
광주시, 국방부·주민 협의할 것



광주도심 하늘 나는 전투기.

/연합뉴스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나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예비)를 선정하려던 국방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무안군의 의회가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전남 4개 군을 대상으로 작전성, 적합성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국방부는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한 영암, 무

안, 신안, 해남 등 4개 군 가운데 2개 군과 집중적인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안군의회가 전남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장벽에 직면했다.

무안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책 등에 대한 설

명 없이 사업의 당위성 위주로만 홍보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개략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책무성이 결여된 졸속 추진일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예정부지가 229km의 해안선과 해양관광자원의 중심부에 있고 다도해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역이며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KTX)역세권 개발

사업·항공특화산업단지 인근으로, 군 공항이 이전된다면 군의 발전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안군의회는 “무안공항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광주 군 공항의 무안군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며 “특정 지역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만을 위해 발의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무안군의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최근 국방부가 협의에 나서면서 무안군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의회가 반대에 앞장서면서 지역

주민의 여론도 급격하게 반대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작전성 검토 등을 추진 중인 국방부가 연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천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의 종전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양여’ 방식의 사업이다.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면 주민지원 사업으로 4천500억여원을 투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와 접촉이 이뤄지면서 후보지 선정에 대한 우려로 결의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개항 이후 ‘인천 도시공간의 변화’ 알린다

인천시 시립박물관은 송도동에 위치한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오는 24일 토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체험 교육프로그램 ‘인천 도시 탐구생활’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도시 탐구생활’은 학기 중인 4~6월, 9~11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전시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8년 인천 도시 탐구생활의 주제는 ‘개항 이후 인천 도시 공간의 변화’로 근대 문물을 접하게 된 도시 인천의 변화 및

근대 도시로의 발전 이면에 담긴 인천 모습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으로 운영되며 저학년생은 ‘내가 만드는 그림책’, 고학년생은 ‘내가 그리는 만화’를 주제로 전시 관람 및 팝업북 만들기, 조별 5컷 만화 그리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배성수 인천도시역사관장은 “이번 주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개항 이후 도시 인천의 변화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유천·송탄 취수장, ‘39년 체증’ 실마리 찾는다

경기도, 상수원 보호규제 해소 검토
안성·용인·평택시 정책협력관 파견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 상생 협력 및 수질개선 용역 착수 보고회’가 이르면 올해 안에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평택호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개선 종합 대책 용역비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해 지난 10월 용역을 발주했다.

도는 또 상수원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수자원본부에 상생협력추진단을 정식기구로 발족해, 안성, 용인, 평택시의 정책협력관(사무관급)이 올해 3월부터 파견 근무 중이다.

안성시는 지난 39년 동안, 평택시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한 유천·송탄 취수장 관련 규제에 묶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도시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규제로 묶인 대부분의 지역은 공도읍,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안성 2동 등 개발이 용이한 서부권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총 30배(89.07㎢)에 달하며, 이는 안성시 전체 면적의 12%



유천·송탄 취수장 전경.

수준이다.

특히,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약 2.6%인데 반해, 안성은 약 97.4%에 달해,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성시는 이번 용역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중요 쟁점마다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거치며, 민간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석토록 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간대표 추천에 앞서 안성시는 사전에 규제지역 마을 대표와 면담을 통해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등, 규제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경기도에 적극 협력은 물론,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유사사례도 검토해, 용인시, 천안시 등과의 현실적 업무 협의와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한 새로운 상생협력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지난 10월 19일 안성시청에서 열린 ‘민선 7기 비전 및 공약 사업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유천·송탄 취수원 상수도 보호 구역 규제 해소를 우석제 안성시장의 5개 핵심공약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지정한다 밝혔다.

/경기 안성=이보현 기자 bhlee7777@

장흥군 자살예방 ‘생명사랑 실천가게’ 현판식

장흥군은 지역 내 번개탄 판매점 8곳을 ‘자살예방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된 곳은 번개탄을 가급적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판매 시 용도를 묻기로 했다.

자칫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번개탄의 접근성을 낮춰 자살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 되었으며, 참여 업체들은 “뜻 깊은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참여의지를 내비쳤다.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위의 작은 관심



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장흥군 만들기에 첫 단추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부천 메이커스페이스 제조·디자인 등 ‘메이커 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부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제조, 콘텐츠 융복합, 디자인, 제품개발 분야의 예비창업자 교육프로그램인 ‘메이커 창업스쿨’을 운영한다.

메이커스(Makers)는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획부터 제작까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1인 제조기업’을 말한다.

‘부천 메이커스페이스’는 도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지난 7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3D 프린터, CNC조각기, 레이저 가공기 등 17종의 메이커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예비창업자, 창업초기단계 기업 등에게 다양한 메이커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메이커 창업스쿨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나만의 지식재산권 확보하기 ▲시제품 개발 전략 ▲정부지원 창업제도의 이해와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발표 능력 함양 및 모의심사 등 총 6회의 단계별 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주간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전체 과정의 80% 이상 교육 수료자는 지식재산권, 시제품제작, 사업계획서, 창업자금 분야 전문가와 1:1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부천 메이커스페이스 내부전경 /경기도

오늘의 날씨

11월 21일(수)
음력: 10월 14일

수도권 날씨
5~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18 | 해질 / 17:18

연천 3/7, 동두천 4/8, 가평 2/6, 파주 3/7, 서울 5/8, 양평 3/8, 인천 6/7, 수원 6/7, 용인 6/7, 평택 3/9, 백령도 5/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시, 노후 경유차 3만대 줄여 초미세먼지 58t 줄였다

질소산화물 702.45t 저감효과 폐차 보조금 최대 770만원 지원

서울시가 올해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로 초미세먼지(PM-2.5) 57.64t을 줄였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10월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만1986대를 조기폐차하고, 7372대에 매년저감장치(DPF)를 부착했다.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는 77대,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만9957대를 저공해 조치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57.64t,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702.45t으로 나타났다.

특히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소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가 효과적

〈최근 운행차 저공해추진 실적〉

(단위 : 대)

구 분	계	DPF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 폐차	PM-NOx	건설기계 엔진교체
		자동차	건설기계				
계	87,566	20,352	1,339	162	64,299	425	989
'15년	13,039	4,412	-	73	8,399	60	95
'16년	15,819	4,714	159	54	10,446	130	316
'17년	28,751	3,876	972	13	23,468	158	264
'18.10월	29,957	7,350	208	22	21,986	77	314

※ '17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삼원축매장지는 실적에서 제외

이었다.

차량 1대당 질소산화물 저감량은 대형차에 장착하는 동시저감장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각각 500.26kg/년·대, 288.73kg/년·대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8만7566대를 저공해 조치했다. 조기폐차 6만4299대, 저감장치(DPF, LPG엔진개조) 2만1853대, 동시저감장치는 1414대에 설치했다.

시는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으

로 2011년도 대비 2015년도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553t에서 1314t으로 4년간 239t 줄였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 역시 줄었다.

2003년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05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미세먼지는 58 $\mu\text{g}/\text{m}^3$ 에서 44 $\mu\text{g}/\text{m}^3$ 로, 질소산화물은 34ppb(2005년)에서 30ppb(2017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부의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을

따라,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 운행을 제한했다. 운행제한 위반 차량 1189대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2002년 6월 이전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같은해 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와 생계형 차량은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년)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에만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2005년 이전 경유차량 19만3000대(총중량 2.5t 이상 8만6000대, 2.5t 미만 10만7000대) 중 2.5t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매년 저감장치 부착으로 2020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와 매년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는 2.5t 미만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440만원~7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은 운행경유차가 326만원~927만원, 건설기계는 666만원~934만원이다.

질소산화물 저감 보조금은 PM-NOx가 1305만원~1462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은 1002만원~2526만원 지원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북악스카이웨이 1교 보수완료... 23일 재개통

통과하중 총중량 43.2t으로 높여 교량·보도 폭 확장... '1등급' 개선

서울시가 북악스카이웨이 1교의 재시공을 마치고 23일 오전 9시 재개통한다.

1970년 4월 15일 폭 8.3m, 연장 60m로 준공된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2014년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평가돼 긴급보수공사가 실시됐다.

이후 서울시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교량 전체를 개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북악스카이웨이 1교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임시가교를 설치해 통행을 전환시켰다.



재시공을 마치고 23일 재개통을 앞둔 북악스카이웨이 1교의 조감도. /서울시

개축공사를 마친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2등급 교량에서 통과하중을 총중량 43.2t으로 높여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했다. 교량과 보도도 확장해 23일 재개통한다.

기존 북악스카이웨이 1교는 내하력 부

족과 내구성 저하로 총중량 21t으로 차량통행을 제한했다. 시는 이번 개축공사로 43.2t으로 총중량을 높였다.

교량 폭도 8.3m→9.8m, 보도 폭 1.0m→1.5m으로 확장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임시가교로 우회하는 등 통행에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서울의 대표적 드라이브코스인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후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600억 걸린 '정책공모 제안' 30건 접수

경기도, 총 10개 사업 본 심사 진출

경기도가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First' 공모결과 3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고 100억 원에서 60억 원까지 지원되는 대형사업에 16건, 최고 60억 원에서 45억 원이 주어지는 일반사업에 14건 등 총 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First'는 민선 6기 경기도가 추진했던 'Next경기 창조오디션'을 잇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모두 10개 정책에 600억 원 규모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제안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와 부서에서 추천한 1,000여명의 전문가들로 평가위원

을 구성한 후 이 가운데 무작위로 40명을 심사위원단으로 선정하며, 이들은 각 20명씩으로 나뉘어 현장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맡게 된다.

도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이 직접 예정 사업부지를 둘러보고 사업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질문답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대규모사업 상위 3개와 일반사업 상위 7개는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인 본 심사에 진출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공모 2018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군이 재정 부담 없이 대규모 사업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선 7기에도 정책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군의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고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대공원 동물사 새단장

조류사·제3아프리카관 리모델링
동물복지 실현, 관람객 몰입도 커져

서울대공원이 동물의 습성과 생태를 반영한 동물사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재 개장한 동물사는 조류사와 제3아프리카관이다. 조류사는 1년 6개월, 제3아프리카관은 1년간의 공사를 거쳐 11월 재개장했다. 야행관도 7월 재 개장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의 습성과 생태를 파악해 동물사를 새로 지었다고 20일 밝혔다. 동물 복지를 실현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더욱 자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관람객 또한 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공원은 지난 2016년 12월 황새 2수의 폐사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을 막고 멸종위기 조류 보호를 위해 조류사를 재설계했다.

우선 얇은 물가에서 먹이를 찾는 섭금류를 위해, 서울대공원은 '황새마을' 동물사의 언뜻 크기를 다양화하고 휴식을 위한 나무를 심었다. 기존 황새마을보다 야외 면적을 넓히고 지붕도 높였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새를 위한 격리실도 갖추었다. 황새 마을 2층 관람창에는 점들을 표시해, 새가 날다가 부딪히지 않도록 했다.

격리방사장에는 지붕 차폐 장치를 마



서울대공원 사자사(왼쪽)와 큰물새장. /서울대공원

련해, 외부 철사의 분변이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야외방사장의 경우, 동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내부 관람로를 차단하고 별도로 3개의 관람대를 조성했다.

제3아프리카관의 사바나길은 초원의 서식환경이 재현됐다. 사자 방사장은 여러마리의 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조형물 5개가 설치됐다. 관람창은 사자방사장 안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도록 지어졌다고 대공원 측은 설명했다.

관람 동선이 닿지 않았던 치타와 하이애나 방사장도 근접 관람이 가능해졌다. 대공원은 국제규격 이상으로 넓은 초원속에서 치타가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



게 됐다고 밝혔다. 물을 좋아하는 점박이 하이애나 방사장에서는 인공연못과 바위굴을 조성해 하이애나의 풍부한 생태를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7월 재개장한 야행관은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야외 방사장이 들어섰다. 이 집트과일 박쥐 공간은 종유석, 석순과 석주 조형물로 동굴을 재현해 박쥐에게 쉼 공간을 제공했다. 나무타기를 잘하는 킹카주에게는 나무 조형물과 마닐라로프로 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사장을 조성해 주었다. 관람통로 또한 내부와 같이 연출하여 관람객이 동물이 사는 공간에 들어온 느낌을 살렸다고 대공원 측은 밝혔다. /이범종 기자

전통시장 김장비용, 대형마트 보다 10% 저렴

배추 60포기 기준 13개 품목 조사
전통시장 25만원, 대형마트 28만원

올해 김장 재료 구매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61곳에서 4인 가족(배추 20포기 기준) 김장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0.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2일~13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의 협조를 서울시내 전통시장 50곳과 대형마트 10곳 등을 방문해 주요 김장 재료 13개 품목의 소매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5만 1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4160원보다 12.2% 상승했다.

대형마트는 28만203원으로 지난해 24

만5340원보다 14.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오른 이유는 배추·대파·쪽파·미나리·반청갯 등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 감소와 기상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배추는 생산 지역이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재배 면적 감소와 생육기 저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건고추와 생강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고 작황이 좋지 않아 높은 시세를 형성했다.

반면 무는 재배면적 증가로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를 보였다.

수산물 중 새우젓은 근래 2~3년간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로 재고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10% 이상 올랐다. 굴은 올 여름 폭염과 태풍에도 불구하고 작황은 대체로 양호해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로 거래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범종 기자



[산업]
AR·VR 더 생생하게...
디스플레이 업계
5G용 초실감 OLED 개발
06



[인터뷰]
류시원 레이서 겸 감독
“볼스원 ‘G-테크’
레이스 활약에 한 몫”
L4



Life

타임머신 타고 600년 전으로... 발 아래로 펼쳐진 조선

되살아나는 서울

㉔ 종로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서울 종로를 가득 메운 고층 빌딩 숲 지하에 600년 전 조선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공평동 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과정 중 조선 시대 전기부터 근대 경성에 이르는 유구와 유물을 발굴해 도시 유적을 원위치에 전면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문화재청과 사업 시행자와 반년이 넘는 협의를 거쳐 매장 문화재를 현장 박물관으로 조성해 올해 9월 개관했다.

◆개발과 보존의 공존, '공평동 룰'

16~17세기의 조선을 만나기 위해 지난 11일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방문했다. 전시관은 종각역 앞 센트로폴리스 건물 지하 1층에 연면적 3817㎡ 규모로 조성됐다.

전시관 바닥은 투명한 유리로 이뤄졌다. 이날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은 발 아래로 펼쳐진 조선 시대 건물터와 골목길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온 이선희(35) 씨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 조선시대 때 골목을 걷는 듯한 착각이 든다”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기분이다”며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이 씨는 “관람데크 중 일부가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전부 유리 바닥으로 바꾸면 유물이 잘 보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전문 건축사가 전시 설계에 참여했다. 유구 등 콘텐츠가 많은 부분은 바닥을 유리로 만들었고, 통로나 유구가 없는 곳은 관람 환경을 고려해 알루미늄 재질의 데크로 조성해 이용객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은평구 대조동에서 온 이인옥(57) 씨는 “이런 금싸라기 땅에 600년 전 집터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참 신기하다”면서 “이것들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본 모습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한 게 대단하다”며 엄지를 치켜 올렸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개발과 보존의 공존을 유도한 민관 협력 보존형 정비사업 모델의 첫 사례다. 시는 매장문화재를 원위치에 보존하는 대신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손실을 보전해줬다. 시는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방식인 ‘공평동 룰’을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굴되는 문화재 관리 원칙으로 삼을 계획이다.

공평동 룰에 따라 건물은 기존 용적률 999%(A동 22층, B동 26층)에서 인센티브 200%를 받아 총 용적률 1199%(A동 26층, B동 26층)로 지어졌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시에 기부채납돼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으로 운영된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공평유적전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원위치에 전면 보존한다는 것이다”며 “청진구역 등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전시되는 한계



종로구 공평동에 위치한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지난 11일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가상현실 영상기기 체험을 하고 있다.



공평유적전시관을 찾은 시민들이 1/10 크기로 축소된 '정동 큰 집'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발굴한 유적 센트로폴리스 지하에 박물관 조성

유리바닥 아래로 옛 골목 펼쳐져 가상현실 체험으로 가옥 내부 관람 유물 통해 당시 생활 모습 유추도

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에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시행자가 이에 상응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민간 건물 내의 현장 전시관은 첫 사례”라며 “공평유적전시관은 유구 원위치가 대규모로 보존돼 주목받았다. 공평동 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종로 한복판서 조선을 체험하다

전시관의 핵심 콘텐츠는 각기 다른 형태로 복원된 가옥 3채다. 입구 앞에는 '정동 큰 집'을 1/10 크기로 축소한 전시물과 영상이 있어 당시 모습과 현재 집

터를 비교해가며 볼 수 있었다.

전동 큰 집 옆, '골목길 모자 집'터에는 가상현실(VR) 영상기기가 놓여 있었다. VR 체험을 마친 시민 손수희(35) 씨는 “가옥 안으로 들어가 집 내부를 둘러보는 느낌이었다. 가옥을 디지털 영상으로 재현해 집 구조를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손 씨는 이어 “그런데 기기 조작법이 어려워 초반에 5분 정도 헤맸다.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며 “교육적인 체험 프로그램이어서 어린이들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VR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컨트롤러가 원래 2개였는데, 조작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1개로 바꿨다”며 “제작사와 협의해 설명 패널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시관 가장 안쪽에는 '이문안길 작은 집'이 실제와 같은 크기로 복원되어 있었다. 온돌과 마루, 아궁이 등의 주택 바닥형식이 모두 발굴돼 조선 전기의 한옥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 전시물이다.

이문안길 작은 집을 둘러본 시민 백은경(31) 씨는 “집 안에 화로, 나막신 등이 있어 실제 사람이 사는 것 같다”며 “그 당시 이문안길 작은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물관에는 2015년 발굴된 유물 1000여 점과 인근 청진동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 20점도 함께 전시됐다. 중국 명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병 조각, 청동거울, 조선 전기 무신 구수영의 패찰 등을 통해 당시 생활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시관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관람료는 무료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관한다.